

한국섬유공학회의 창립

박신웅(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제17대 한국섬유공학회 회장)

1. 사단법인 한국섬유공학회의 탄생과 1963년 이전의 초창기 연구 인력과 연구 활동

회원 1,600여 명에 연간 60~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국연구재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학술 관계 학회 중 최우수그룹으로 분류를 받는 한국섬유공학회(韓國纖維工學會)는 해방과 더불어 1946년 9월 잉태되어 78년여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섬유공학회의 전신은 8·15 광복 당시 우리의 기간산업으로 일제로부터 남아 있던 중연방직(鐘淵紡織, 경성, 광주), 동양방직(東洋紡織, 경성, 인천), 조선방직(朝鮮紡織, 부산), 경성방직(京城紡織, 경성), 대화방직(大和紡績, 창동), 조선면화(朝鮮棉花, 목포), 송고실업(松高實業, 개성), 대일본방(大日本紡, 경성), 조선제마(朝鮮製麻, 인천), 도시방직(都是紡績, 대구) 등에 종사하고 있던 경성고공(京城高工) 및 몇몇 해외 유학과들 기술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대한섬유공업연구회(大韓纖維工業研究會), 대한방직기술협회(大韓紡織技術協會, Korean Textile Engineering Association)가 본 학회의 전신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면방직공업이 1945년 해방 전후 유일하게 섬유산업의 근간으로 가장 큰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국내 섬유 공업교육의 중심이었던 경성고등공업학교(京城高等工業學校)를 1938년에 16회로 졸업하신 유종만(俞鐘萬) 등이 발의하여 섬유 관련 인사들이 모여 1946년 9월에 대한섬유공업연구회(大韓纖維工業研究會)를 창립하고, 초대 이사장으로 일제하 중앙시험소에서 “苧麻布經絲로서의 紡織 大麻絲의 應用(저마포경사로서의 방직 대마사의 응용)”, “大麻布經絲로서의 紡績 大麻絲의 應用(대마포경사로서의 방직 대마사의 응용)” 등을 연구하신 안호준(安鎬俊, 경성공업전문학교, 2회(1919년) 졸업)을 선출하였다. 이들은 대한섬유공업연구회의 우선 사업으로 섬유 관련 도서를 발간하기로 하였으니 그 제1권이 “綿紡績(면방직)”이요, 제2권이 “力織機學(역직기학)”이었다. 이 두 도서는 우리말로 된 섬유 관련 도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또 도서 저술 상황이 아닌 해방 직후의 무질서 시대에 도서 창간에 유의한 연구회 회원들의 큰 뜻에 깊이 감탄할 뿐이다. 이 두 권의 도서는 내용에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깊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도서로서, 이 책들이 196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공과대학 섬유공학과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것을 보더라도 이 두 책 출간의 의의를 알 수가 있겠다. 그러나 6·25 동란 이후 대한섬유공업연구회는 파란곡절이 있었고 또 1951년 1·4 후퇴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면상태에 있었는데, 대통령 특명에 의한 대한기술 총협회에의 가입 문제가 있어서 1952년 11월 임시 수도 부산의 서대신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임시교사에서 윤주복(尹柱福, 경성고등공업학교, 방직과 제1회 1923년 졸업) 등 27명의 섬유인들이 참석하여 대한방직기술협회로 재출발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섬유공학회의 모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다. 아래에 이 두 권의 도서를 소개하는데 그 당시 이러한 책의 출간 의의를 이들 도서의 서문들에서 알 수가 있다. 이 서문에서 대한섬유공업연구회 이사장 안호준은 이러한 책의 발간은 국가적으로 경축할 만하다고 격찬하고 있

다. 따라서 이들 서문도 같이 소개한다. 이 서문에서 대한섬유공업연구회 이사장으로서 안호준의 활동상을 엿볼 수 있다.

1.1. 도서 발간

(1) 제1권 면방직(綿紡績)

도서명	면방직(綿紡績)
저자	김병운(金丙運, 경성고등 공업학교, 방직과 13회 경성방직 영등포공장 공장장, 서울대 공대 강사)
쪽수	304
발행	대한섬유공업연구회(大韓纖維工業研究會, 을유문화사)
발행연월일	1949년 2월 1일
인쇄소	서울신문사 인쇄국
가격	2,400원(圓) (1000부 한정판)

[서문]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의무 중 後生(후생)을 敎道(교도)하여 우리나라의 건실한 일군을 양성함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세계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큰일을 할 인물도, 국가를 세워 濟生安民(재생안민)하는 국가적 인물도, 20세기의 문화를 造成(조성)한 힘도 다 후생을 교도한 功(공)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을 발간함은 大韓(대한)을 위하여 무한히 慶祝(경축)하다 일이며 한 기술인으로서 일상생활의 경제적 고통과 해방의 혼돈한 사회의 고된 일을 무릅쓰고 불철주야로 노력한 김병운 군의 성의와 열의에 대하여 감격과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집필자 김병운 군은 경성고등 공업학교 방직과 졸업 후 경성방직주식회사의 공장에 십수 년을 하루와 같이 꾸준히 노력하며 연구하고 있는 모범적 기술자인 동시에 이론상, 실제 경험상 斯業(사업)의 彗星(혜성)적 존재이며 우리 방직계의 麒麟兒(기린아)입니다. 이 서적의 내용은 이러한 저자의 수년간 노력한 결정인 만큼 그 이론과 실제 기술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술 해설하였으므로 면방직공업에 종사하는 諸氏(제씨)의 기술도서가 될 것이요 외국 서적에 비하여도 그 내용이 優位(우위)에 있음을 斷言(단언)하오며 自誇(자과) 합니다. 원하건대 이 책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干城(간성)이 될 방직공업 기술자가 속출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술도서를 大韓(대한)사회에 하루라도 빨리 보내고자 本會(본회) 전원이 一心(일심) 노력하여 이 서적을 완성하게 되었음은 本會(본회)를 위하여 自祝不已(자축불기) 하는 바입니다.

1948년 5월 30일
大韓纖維工業研究會(대한섬유공업연구회)
安鎬俊(안호준)
金奎善(김규선)

(2) 제2권 역직기학(力織機學)

도서명	역직기학(力織機學)
저자	강창섭(姜昌燮, 경성고등 공업학교 방직과 17회 졸업, 경성방직 영등포공장 부공장장)

쪽수	184
발행	대한섬유공업연구회(大韓纖維工業研究會, 을유문화사)
발행연월일	1949년 9월 1일
인쇄소	서울신문사 인쇄국
가격	1,800원(圓) (1,000부 한정판)

[서문]

大韓纖維工業研究會(대한섬유공업연구회)가 발족한 지 불과 수년 그 사업의 하나로서 섬유 공업 총서를 편찬할 계획을 세우고 그 제1권 “면방직”의 집필을 본회 회원 金丙運(김병운) 씨에게 위촉하여 지난번에 출판하였다. 聲價(성가)는 이미 정평이 있거니와 이제 제2권 力織機學(역직기학)을 회원 姜昌燮(강창섭) 씨가 집필하여 발행에 이르게 되었다. 저자 강창섭 씨는 일찍이 경성고등 공업학교 방직학과를 마치고 그 후 십수 년간 경방 영등포공장 부공장장으로 귀중한 실지 경험자일 뿐 아니라 일편 서울 공립공업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篤學者(독학자)이다. 본서 내용을 보건대 이론을 經(경)으로 하고 실계를 緯(위)로 하여 이론과 실재를 완전히 부합시킨 것이 그 특색의 一(일)이요, 질서가 정연하고 설명이 平易(평이), 親切(친절)하여 독자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한 것이 그 특색의 二(이)요, 挿圖(삽도)가 많아서 독자로 하여금 그 인상이 오래 머리에 남도록 한 것이 그 특색의 三(삼)이다. 이러한 점이 본서가 항간에 簇出(족출)하는 보통 출판물과 類(유)를 달리하는 것이며 또한 저자가 다년간 편찬에 고심 노력한 蹤迹(종적)이다. 그러므로 본서는 학교에 있어서 교사나 학도의 참고서, 교과서로서 가장 적당하며 공장에 있어서 기술의 향상과 보급에 가장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섬유공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一讀(일독)하면 곧 이해할 수 있는 양서이다.

대한민국인 때 마침 신생국가 건설 초기에 있어서 공업기술자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보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중에도 섬유공업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섬유공업이 현재 다른 공업에 비하여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더욱 발전을 요하는 까닭이다. 이때 본서의 출현은 민국의 산업 건설을 위하여 얼마나 意義(의의) 깊은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본서가 경애하는 국민 각 위의 애독하는 바가 되어 섬유공업 향상 발전에 기여함이 있으면 저자는 물론 본 대한섬유공업연구회의 本懷(본회)이며 또한 光榮(광영)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1949년 9월 28일
大韓纖維工業研究會 理事長(대한섬유공업연구회 이사장)
安鎬俊(안호준)

(3) 제3권 염색법(染色法) (실행되지 못함)

도서명	염색법(染色法)
저자	임경성(林慶星, 국립공업연구소, 염직과장, 연구부장)

1.2. 한국섬유공학회의 연혁

(1) 약사(略史)

한국섬유공학회는 초대 대한섬유공업연구회 안호준 회장(1946.9 - 1952.11.16.)과 경성고등공업학교 섬유학과(紡織學科)를 1923년 졸업하고 일본 구주제국대학(九州帝國大學) 응용화

학과(應用化學科)를 졸업(1929년)한 후 중앙시험소에 근무하다가 경성방직회사 건설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사장으로도 근무하였던 2대 대한방직기술협회 윤주복 회장(1952.11.16 - 1957.4.27)에 이어, (株)방림(邦林)의 전신이면서 종연방직의 후신으로 생각되는 고려방직공사(高麗紡織公司) 영등포공장의 사장으로서 대한방직협회(大韓紡織協會) 부이사장(제1대~5대, 1949.4.28 - 1955.5.1)을 역임하시고 삼광직물(三光織物)(주)를 영위하신 홍정모(洪貞模) 회장의 대한방직기술협회(1957.4.27 - 1961.12.29), 한국섬유공학회(1961.12.29 - 1963.1.31.),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韓國纖維科學技術協會, 1963.1.31 - 1967.9.12)와 사단법인 한국섬유공학회(1967.9.12. -)로 이어진다.

초대 안호준 회장이 기반을 세웠다면, 윤주복 회장은 6.25라는 혼란의 폐허로부터 본 학회의 전주를 세우는데 이바지하였다고 생각된다. 안호준 회장은 1919년 경성공업전문학교 염직과 제2회 졸업생 중 한 분으로 중앙시험소(1915~1943)의 연구원으로 일본인 공저자 한 분과 “苧麻布經絲로서의 紡織 大麻絲의 應用(저마포경사로서의 방직 대마사의 응용)”, “大麻布經絲로서의 紡績 大麻絲의 應用(대마포경사로서의 방직 대마사의 응용)”을 발표한 바 있는 섬유 연구자로 학자적 입장에서 학회 창립을 주도하신 것으로 이해된다. 이 기간에 안호준 회장 외에 1917년 발표“朝鮮産植物染料(조선산식물염료)로서의 ‘신나무’ 葉(엽)의 利用(이용)”의 일본인 1인 공저자 장기현(張冀鉉)과 “朝鮮産染料植物試驗(조선산염료식물시험)”을 경성고공(京城雇工) 31년 졸업의 9회 김재권(金再權) 연구원(후에 전남대 교수)이 일본인들 가운데 한국인들이다. 이후 홍정모 회장님의 10여 년 협회 또는 학회장 등으로 오늘의 학회가 있기까지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2) 사단법인 한국섬유공학회 창립 일자

1963년도를 공식적인 학회 창립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은 1946년도가 실질적인 본 학회의 잉태로 생각된다. 1963년도를 공식적인 학회 창립일로 봄은 논문지로서의 “纖維(섬유)” 지의 발간 시점으로 봄이 좋을 것이다.

홍정모 회장님은 삼광직물(주)라는 견직물류의 전문 업체를 영위하면서 정부의 국가규격제정을 위해서 1963년도 상공부(산업자원부, 산업통상부의 전신) 산하에 독립부서 기관으로 출범한 표준국(초대 국장: 최한석(崔漢石) 국립공업연구소 부장, 임기 후 고려대 교수로 부임)의 출범과 더불어 한국공업규격(韓國工業規格, Korean Industrial Standard)의 본격적인 제정 업무에 섬유 부문 심의부 회장을 맡으면서 명실 섬유기술계의 원로의 자

리를 잡으셨던 분이다. 이러한 기술 중심의 활동에서 비록 기초 단계이나 학구적인 학술단체로 전화하게 된 것은 대한방직기술협회를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로의 발전적인 개편이다. 대한방직기술협회가 기술자 중심으로 영위되었다고 한다면, 보는 견지에 따라서 다소의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에는 많지는 않지만, 다수의 학자층이 참여하는 기회가 되면서 실질적인 학술단체 성격을 띤 학회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기구가 탄생하면서 학자층들의 논문들이 본격적으로 발표케 되는 장으로서 “纖維(섬유)”라는 학술지가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는 끝에 협회라는 낱말이 붙어 있으면서 수많은 일반 산업체의 단체 협회와 혼동을 일으키면서 학계에 종사하고 있던 학자 회원들에겐 가끔 피해가 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컨대 본 회지에 실린 논문이 학교에서의 논문평가에 제대로 인식되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1963년 창립총회 때 이미 학자층들에선 명칭을 학회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당시로서는 여의찮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가끔 대한방직기술협회를 대한방직협회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대한방직협회 산하의 방직기술연구회(紡織技術研究會)와의 혼돈에서 온 착오임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 증거로 윤주복 이사장 임기 중에 있었던 대한방직협회 주최 방직기술연구회에 본 대한방직기술협회가 축하 꽃다발을 보냈다는 기록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를 학회 성격으로 해석 이해하는 것은 정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정관의 제2조 “본회는 섬유공업에 관한 학문의 연찬과 기술의 진보 발전을 도모하여 이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제3조 “본회는 전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사연구, 2.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연구 업적의 표창, 3. 학술강연회와 강습회 개최, 4. 회지와 섬유공업 도서 발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약사를 연도별로 정리한다.

학회명	학회장	임기
대한섬유공업연구회 (大韓纖維工業研究會)	안호준(安鎬俊)	1946.10 - 1952.11.16
대한방직기술협회 (大韓紡織技術協會, Korean Textile Engineering Association)	윤주복(尹柱福)	1952.11.16, - 1957.4.27
	홍정모(洪貞模)	1957.4.27, - 1961.12.29

학회명	학회장	임기
한국섬유공학회 (Korean Society of Textile Technology)	홍정모(洪貞模)	1961.12.29. - 1963.1.31
사단법인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 (社團法人 韓國纖維科學技術協會, Korean Association of Textile Engineers & Chemists)	홍정모(洪貞模)	1963.1.31. - 1968.3
사단법인 한국섬유공학회 (社團法人 韓國纖維工學會)	장석운	1968.3 - 1970.5
	김문상	1970.5 - 1972.6
	김노수	1972.6 - 1974.2
	김노수	1974.6 - 1976.2
	김노수	1976.6 - 1978.2
	노정익	1978.2 - 1980.2
	노정익	1980.2 - 1982.2
	이재곤	1982.2 - 1984.4
	김진우	1984.4 - 1986.4
	하완식	1986.4 - 1988.4
	송석규	1988.4 - 1990.4
	고석원	1990.4 - 1992.4
	마석일	1992.4 - 1994.4
	박신웅	1994.4 - 1996.4
	김상용	1996.4 - 1998.4
	이의소	1998.4 - 1999.12*
	박연흠	2000.1 - 2000.12

(3) 사단법인 한국섬유공학회의 뿌리 대한섬유공업연구회, 대한방직기술협회의 운영

현재 우리 학회의 법적 자산은 등기부상에 20만 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 학회의 전신 성격을 띠고 있는 대한방직기술협회의 운영 역사를 조명해 보면 개략적 학회의 근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1950년 초반 대한방직기술협회의 운영자금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 상황이 되지 못하여 몇 분 학자와 기술들이 조달한 돈으로 운영되었다. 참고로 1954년 1월 30일 대한방직협회에서 찬조한 302,150원이 우리 학회의 자산 근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들은 1960년 5, 16혁명 하의 제2차 화폐개혁을 거치는 동안 사실상의 평가절하가 거치면서도 학술단체의 성

격대로 특별히 활용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만 이 돈을 홍정모 대한방직기술협회 회장이 사단법인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를 승계하면서 본인의 사업체인 (주)삼광직물(당시 왕십리 소재)에 맡겨 매달 받은 이자 수입이 국립공업연구소에서의 학회사무소 시절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이즈음 학회 총무이사셨던 노정익 임직과장을 도와 매달 이자를 받으려 (주)삼광직물을 방문했던 기억이 난다. 가끔 이야기되기도 하는 것으로 이 돈을 그대로 은행에 예치해 두지만 말고 부동산 등 이자를 늘이는 쪽으로 투자했다라면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학회에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지 하는 것이다. 다음에 대한방직기술협회의 회칙을 들여다봄으로써 학회로서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 大韓紡織技術協會會則(대한방직기술협회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대한방직기술협회라 칭함

제2조 방직 기술자 간에 상호 침묵과 방직 기술 향상과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제3조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둠.

제4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 달성하기 위하여 좌의 사업을 함.

1. 강연회 개최
2. 회지 혹은 도서 발간
3. 기술 경연급 공장 시찰
4. 기타 적당한 사업

제5조 본회 회칙의 제정 급히 변경은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함

제6조 본회 회칙의 변경 급히 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4분의 3의 동의를 필요로 함.

제7조 본회의 사업 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함.

제2장 회원

제8조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음.

1. 고등학교에서 방직공업을 전수하고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
2. 방직 기술에 숙달하고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

제9조 회원으로 입회코자 하는 자는 회원 2명의 소개를 받아 이력서 및 입회금을 갖추어 입회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함.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 때문에 입회를 승인함.

제10조 회원은 입회 일로부터 퇴회일까지 회비를 내야 한다.

제11조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퇴회를 득함.

제12조 회원으로서 본회 회칙을 위반 또는 본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 때문에 이를 제명함.

제3장 임원

제13조 본회에 좌의 임원을 둠

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명, 상임이사 3명, 이사 10명, 감사 2명

제14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회의장이 됨.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함.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 위임사항 급 회장의 명에 의한 사무를 집행함.
 감사는 수시로 회계사무를 감사함.
 제15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함(투표 동점 시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제16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단 중임 할 수 있음).
 제17조 회원은 매년 회비 금 일만원 납부, 신입회원은 입회비도 일만원 납부해야 함.

제4장 회의

- 제18조 회의는 총회 급 이사회 의 2종으로 함.
 제19조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중 서울특별시 내에서 개최함.
 제20조 이사회 의 결의 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함을 필요로 함.
 제21조 총회 소집의 통지는 좌의 방법의 하나로서 행함.
 1. 서면,
 2. 본회에서 발행한 잡지,
 3. 신문광고 또는 라디오.
 제22조 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서 성립함.
 제23조 총회에는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표결을 불허함.
 제24조 총회 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서 이를 결정하고 가부 동점 시는 의장이 이를 결정함.
 제25조 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할 수 있음. 단 필요시는 임시 이를 개최할 수 있음.
 이사회는 본회 사무 집행의 요강 급히 부의된 사항을 의결함.
 제26조 이사회는 이사 4분의 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됨. 이사회 의 의사는 과반수로서 이를 결정하고 가부 동점 시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함.

대한방직기술협회는 1945년 10월 안호준 님을 이사장으로 일제하에서 섬유업에 종사하였던 우리 기술 중견인들을 중심으로 결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섬유 생산 주체였던 대한방직협회와 함께 우리의 섬유산업의 기술 및 학술 면의 총본산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6·25 동란을 겪으면서 부득이한 소강상태에서 1952년 11월 16일 부산 피난처에서 윤주복 이사장으로 다시 활동하게 된다.

다음에 윤주복 이사장 임기 중, 1950년 6월 25일 한국동란 이후 1956년 8월 9일까지의 대한방직기술협회의 경과 과정을 요약하면서 한국섬유공학회의 뿌리와 주변 상황을 유추해 보기로 한다.

* 1950년 6월 25일 한국동란 이후 1954년 2월 6일까지의 대한방직기술협회의 경과 과정

1. 1950년 6월 25일 한국동란
2. 1951년 1월 4일 1.4 후퇴 : 정부 부산으로 遷都(환도)
3. 1952년 11월 16일 : 지금까지 안호준 이사장
 6.25 사변으로 회원 간의 소식이 두절되었다가, 부산 피난지에서 임시총회를 서울대 공대 避難假校舍(東大新洞)[피난가교사(동대신동)]에서 개최

출석회원 수 : 27명

토의 안건 :

(가) 임원개선 : 이사장 : 윤주복

부이사장 : 김학서, 홍정모

이사 : 진재홍, 유종만, 천영근, 유 홍, 박순빈,

이재룡, 김이조, 전효섭, 서정익, 김문상,

장석윤, 김치선

상임이사 : 김문상, 장석윤, 김치선

감사 : 김규선, 정호중

(나) 臨時經費調辦件(임시경비조변건)

4. 1953년 2월 14일 : 화폐개혁

5. 1954년 8월 15일 : 정부 환도

6. 1954년 1월 30일 : 대한방직협회에서 대한방직기술협회에 302,150원을 찬조하다.

7. 1954년 2월 6일 : 대한방직기술협회 임시총회 개최

환도 후 회원 간의 소식 연락자 임시총회 개최

8. 1954년 7월 25일 : 정기총회 개최

(가) UNKRA Tailor씨를 내빈으로 하여 창경원 水晶(수정)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출석 인원 17명.

(나) 대한방직협회에서 찬조한 302,150원을 기금으로 하여 섬유단체에서 찬조를 얻어 사업을 계획기로 함. 대한방직협회의 찬조금을 사용할 때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기로 함.

(다) 전효섭 씨를 상임이사로 함.

9. 1955년 7월 15일 정기총회 개최

대한방직협회회의실에서 195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출석 인원 22명

토의 사항 :

(가) 임원개선

이사장 : 윤주복

부이사장 : 서정익, 김학서

이사 : 김병운, 김종규, 강우형, 김옥순, 진재홍, 김문상, 이덕기,

전효섭, 홍정모, 최경휘

상임이사 : 김병운, 이덕기, 김문상

10. 1956년 8월 9일 정기총회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수정 크릴에서 개최

토의 사항 :

(가) 방직기술용어 제정기로 함.

(나) 사업으로 임경성씨 원고 “染色法(염색법)”을 발간기로 하고 제반 준비를 상임이사에게 일임기로 함.

(다) 대한기술총협회(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 및 감사를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보고기로 함.

이사 : 윤주복, 김학서, 김병운, 전효섭, 김문상

감사 : 김이조

[대한방직기술협회 회원명부]

성명	근무처 또는 주소	성명	근무처 또는 주소
김규선	아주방직주식회사(마산)	윤주복	
박규훈	동아염직주식회사(서울)	이맹성	
김학서	대아산업공사(서울), 문직학 발간	유홍	국회의원 역임, 가수 김상희 시부
홍정모	(주)삼광직물	원용석	서울특별시 신당동 236의 46, 경제기획원 장관, CAT 회장

성명	근무처 또는 주소	성명	근무처 또는 주소
박영식	대한방직협회, KOTITI 초대 소장	홍학기	충성양조장(대전)
강우형	태창방직주식회사	김재권	전남대 교수 역임
박순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89의 38	김문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1번지 대학관사22호(서울공대 교수)
진재홍	경성방직주식회사	김병운	경성방직주식회사, 방적학 발간
조명호	서울공업고등학교	김의극	동양방직공사
오덕환	신명여자중학교(대구)	박두철	내 외방 직주식 회사(대구) 공무과장
김종규	대전방직공사	김치선	홍한방직주식회사(인천), KATRI 초대 회장
장석운	한양대학교 공대 교수	김종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85의 2
우범식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강창섭	전주방직사(전주)
김옥순	국안방직주식회사	전효섭	상공부 공업국 섬유과장, 공업국장
육영수	태창방직주식회사(서울공장), 공업연구소 역직 과장	김지봉	금성방직주식회사
노광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63의 2	김진국	금성방직주식회사
최재봉	대한방직주식회사(수원)	우지형	태창방직주식회사, 단국대학교 교수
윤청일	고려모직주식회사	이종룡	삼호방직주식회사(대구)
김재완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이덕기	상공부 공업국 섬유과
유춘선	의성공업고등학교(경북), 대구공업고등학교	소병량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김병기	대전방직주식회사(대전)	임한일	상공부 공업국 섬유과장
김남진	전남방직주식회사(광주)	김정식	
김정석		박상하	우하바-젠한텔주식회사
이 건	대전방직주식회사(대전)	이서준	
이세기		정화영	
정수완	신신산업사	홍용운	전남방직주식회사(광주)
김희산	태창방직주식회사(서울공장)	우재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임유빈	금성방직주식회사(안양)	황찬섭	국안방직주식회사(천안)
정원규	조선방직주식회사(대구), 영남대학교 교수	윤태석	홍한방직주식회사(인천)
맹주익	홍한방직주식회사(인천)	강교회	삼호방직주식회사(대구)
고재선		윤석태	한국모직주식회사(경남 밀양)
이성배	조양권직주식회사	송영희	금성방직주식회사(안양)
장병호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김노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성명	근무처 또는 주소	성명	근무처 또는 주소
차경모	국방부 병무국 병무과, 한국 레나운 사장	김종철	한국산업은행 감정과
박순성	조선방직주식회사	김순태	조선방직주식회사
이강식	조선방직주식회사	이상호	조선방직주식회사
최익상	서울공업고등학교, 일신방직	유상용	남한방직주식회사(청주)
박석만	조선방직주식회사	전영희	조선방직주식회사
신봉구	조선방직주식회사	김인찬	조선방직주식회사
박규현	조선방직주식회사	남호조	조선방직주식회사
황정도	전남방직공사(광주)	송철현	아주방직주식회사(마산)
이장수	대한방직주식회사(대구공장)	정원수	전남방직공사(광주)
김홍규	상공부 공업국 섬유과	김영훈	상공부 공업국 섬유과
김종원	상공부 공업국 섬유과	이덕기	상공부 공업국 섬유과
서정익	동양방직공사(서울본사)	김영조	동양방직공사(인천)
임경성	중앙공업연구소	윤여경	동양방직공사(인천)
정우상	아주방직주식회사(마산)	한은서	풍한방직주식회사
함인식	동아방직주식회사(부산)	이종재	
최광준	진일산업	김두기	동양방직공사(인천)
최병두	조선방직주식회사(부산)	최사열	태창방직주식회사(영등포, 구 고방)
정호중	대한방직주식회사(수원)	구명회	
김상길	태창방직주식회사(서울공장)	주대윤	
김이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오학근	
최경휘		박남석	
손진현		주태희	조선방직주식회사(부산)
송택인	조선방직주식회사(부산)	이기점	조선방직주식회사(부산)
김영조	조선방직주식회사(부산)	김명준	조선방직주식회사(부산)
박정국	경성방직주식회사(영등포공장)	박봉석	경성방직주식회사(영등포공장)
이병열	경성방직주식회사(영등포공장)	이훈환	경성방직주식회사(영등포공장)
유철성	경성방직주식회사(영등포공장)	유호중	경성방직주식회사(영등포공장)
성일석	대한후직주식회사(동대문)	정진홍	대양모방주식회사(영등포)

2. 한국섬유공학회 창립준비회

대한기술총협회(大韓技術總協會)를 학술적인 성격의 한국섬유공학회로 바꾸자는 의견에 따라 한국섬유공학회 창립준비회가 발기된다. 여기 그 경과 사항을 정리해 본다.

1) 옥내집회거(屋內集會居)

단기 4294년(서기 1961년) 12월 14일자로 한국섬유공학회 창립준비회(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74, 경향신문빌딩 4층

408호실)는 대표 홍정모 이름으로 ‘남대문 경찰서장’ 앞으로 다음과 같이 옥내집회거(屋內集會居)를 낸.

2) 한국섬유공학회 창립준비회 회의록

- (1) 時日 : 4294(1961)年 12月 16日 下午 3時
 (2) 場所 : 韓國會館 2層
 (3) 參席者 名單(貳拾壹名)
 홍정모, 김학서, 김병운, 강우형, 김문상, 성일석, 우범식, 육영수, 김옥순, 박형식, 김익극, 김상길, 이덕기, 박성양, 김노수, 노정익, 이진우, 박순빈, 우제린, 윤영중, 장석운

“會議 내용”

- (1) 下午 3時 30分
 * 홍정모氏 대만, 일본 섬유공장 시찰담.
 * 김병운氏 미국면화채취의 변천과 그 외로는 혼타면기의 기구 변경 이야기.
 * 김옥순氏 영국 ‘만체스터’에서 5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메리야스 기계박람회 시찰담.
 (2) 下午 5時 創立 準備會開催
 1) 김병운氏 動議로서 準備會 代表로서 홍정모氏를 代表로 추대할 것을 滿場一致로 決議.
 2) 김병운氏 動議로서 準備會員 大學校에 계신 분들을 選定하는 것이 좋다는 意見으로 委員은 5名 選出키로 하여 滿場一致로 결의하고 5名 選出은 김문상氏, 김병운氏, 김학서氏, 홍정모氏가 選出하여 動議하였는바 다음 5氏가 選出되다.
 이덕기, 이진우, 우제린, 김상길, 육영수.
 3) 趣旨文問題는 準備委員에게 一任하기로 決定.
 4) 總會期日은 4295(1962)年 2月 中旬 開催키로 決定.
 今日 署名委員을 이진우, 우제린을 決定하고 散會.

- (1) 시일 : 4294(1961)년 12월 16일 오후 3시
 (2) 장소 : 한국회관 2층
 (3) 참석자 명단(21명)
 - 홍정모, 김학서, 김병운, 강우형, 김문상, 성일석, 우범식, 육영수, 김옥순, 박형식, 김익극, 김상길, 이덕기, 박성양, 김노수, 노정익, 이진우, 박순빈, 우제린, 윤영중, 장석운

“회의 내용”

- (1) 오후 3시 30분
 * 홍정모씨 대만, 일본 섬유공장 시찰담.
 * 김병운씨 미국면화채취의 변천과 그 외로는 혼타면기의 기구 변경 이야기.
 * 김옥순씨 영국 ‘만체스터’에서 5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메리야스 기계박람회 시찰담.
 (2) 오후 5시 창립 준비회 개최
 1) 김병운씨 동의로서 준비회 대표로서 홍정모씨를 대표로 추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
 2) 김병운씨 동의로서 준비 회원 대학교에 계신 분들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위원은 5명 선출키로 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5명 선출은 김문상씨, 김병운씨, 김학서씨, 홍정모씨가 선출하여 동의하였는바 다음 5씨가 선출되다.
 이덕기, 이진우, 우제린, 김상길, 육영수.
 3) 취지문 문제는 준비위원에게 일임하기로 결정.
 4) 총회 기일은 4295(1962)년 2월 중순 개최기로 결정.
 금일 서명 위원을 이진우, 우제린을 결정하고 산회.

3. 한국섬유공학회의 적극적 대외활동

1) 국내 관련한 일

“한국섬유공학회” 이름의 기안 용지를 1961년 12월 29일자로 처음 사용하였다. “한국섬유공학회” 이름으로 상공부 표준국에서 추천 의뢰된 관련 섬유 부회 및 섬유 부회 산하 섬유전문위원회별 전문위원들을 추천하면서 학술 및 기술 본산의 일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관련된 공식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工業標準審議會 纖維部會名單 選出會議로 件(1961년 12월 29일)과 관련한 稟議

首題의 件에 관하여 去年 12월 16일 創立 準備會에서 創立準備委員으로 指名된 육영수, 우제린, 김상길, 이진우, 이덕기 등 5명이 下午2시(12월 29일)에 本學會에 모여 總會準備關係事業計劃等 檢討하고 商工部 標準局에서 推薦依頼가 有한 工業標準審議會纖維部會名單別表와 如히 22名을 標準局에 推薦코저 하나이다.

공업표준심의회 섬유부회명단 선출회의로 건(1961년 12월 29일)과 관련한 품의

수제의 건에 관하여 거년 12월 16일 창립 준비회에서 창립준비위원으로 지명된 육영수, 우제린, 김상길, 이진우, 이덕기 등 5명이 하오2시(12월 29일)에 본학회에 모여 총회준비관계사업계획등 검토하고 상공부 표준국에서 추천의뢰가 유한 공업표준심의회섬유부회명단별표와 여히 22명을 표준국에 추천코저 하나이다.

纖維部門(섬유부문)(纖維部會(섬유부회) 위원) 名單(명단)

區分(구분)	姓名(성명)	專門部門(전문부문)
官廳(관청)	魯光煥(공업국 섬유과)	綿絲(면사), 綿麻織物(면마직물)
	陸英洙(공업연구소 絹人纖維物(견인섬직물), 加工絲(가공사)	
	盧正翼(육군기술연구소)	織物(직물), 試驗檢査(시험검사)
學界(학계)	金汶尙(서울공대)	編組物(편조물)
	禹範植(서울공대)	織物(직물)
	禹濟麟(서울공대)	試驗檢査(시험검사)
	金魯洙(서울공대)	染色加工(염색가공), 化學纖維(화학섬유)
	李珍雨(서울공대)	染色加工(염색가공), 化學纖維(화학섬유)
	張碩潤(한양공대)	人纖維絲(인섬방사), 毛絲(모사)
業界(업계)	金相吉(한양공대)	染色加工(염색가공), 化學纖維(화학섬유), Filament絲(사)
	李德基(섬유공학회)	毛絲(모사), 毛織物(모직물)
	朴瑩植(대한방직협회)	試驗檢査(시험검사)
	陳在洪(경성방직회사)	綿絲(면사)
	金丙運(경성방직회사)	天然纖維(천연섬유)(原綿(원면)), 綿絲(면사)

	姜禹馨(태창방직회사)	人纖維絲(인섬방사), 綿絲(면사), 綿織物(면직물)
	金儀樞(동양방직회사)	綿絲(면사), 綿織物(면직물), 染色加工(염색가공)
	洪貞模(삼광직물회사)	絹人纖維物(견인섬직물)
	金鶴端(대아산업공사)	絹人纖維物(견인섬직물), 染色加工(염색가공)
	金枝鳳(금성방직회사)	麻絲(마사), 麻織物(마직물), 染色加工(염색가공)
	李鐘龍(한국견방회사)	毛絲(모사), 毛織物(모직물)
	金鍾奎(삼호방직회사)	綿絲(면사), 綿織物(면직물), 人纖維絲(인섬방사)

纖維部門(전문부문위원) 名單

區分(구분)	專門部門(전문부문)	姓名(성명)
1. 原料部門(원료부문)	天然纖維(천연섬유)	原綿(원면) 김병운, 박남석, 김상엽, 백응철, 장수명, 任賢益, 조병연
		原毛(원모) 정재구, 지윤택, 이종룡, 이덕기
	化學纖維(화학섬유)	김상길, 최숙하, 이규태, 이진우, 김노수, 지윤택
2. 絲類部門(사류부문)	綿絲(면사)	진재홍, 김병운, 김중규, 강우형, 김의국, 장철식, 노광환, 김지봉, 서정익, 김진국, 정호중
	毛(모), 麻(마), 絹紡絲(견방사)	장석운(毛), 강창섭(毛, 絹紡), 이종룡(毛), 이덕기(毛), 정재구(毛), 박성양(毛), 조팔제(毛), 이세기(毛), 맹주익(麻)
	人纖維絲(인섬방사)	강우형, 강교희, 장석운, 김영조(동방)
	加工絲(가공사)	김상길, 옥영수, 이상만, 임근수, 전건(미근사), 이천희(천우사)
	Filament사	김상길, 이준기, 김동일, 차경모, 김이조, 손해운, 최숙하
3. 編組物部門(편조물부문)	經編組物(경편조물)	김옥순, 옥영수, 정수완, 정수중, 김문상, 서문원
	緯編組物(위편조물)	김문상, 김영훈, 양문현, 이준형
	特殊編組物(특수편조물)	김문상
4. 織物部門(직물부문)	綿麻織物(면마직물)	김두기, 맹주익, 김진국, 김정석, 노정익, 노광환, 우지형, 장철식
	毛織物(모직물)	윤영중, 유진구, 박성양, 이덕기, 노정익, 윤철일
	絹人纖維物(견인섬직물)	우범식, 옥영수, 김이조, 김학서, 김희산, 허선희, 윤태석, 이성배, 홍정모, 박순빈, 김치선, 송남엽, 김종원
	特殊纖維製品(특수섬유제품)	성일석, 박태석, 김동완, 한언교

5. 染色加工部門(염색가공부문)	김상길, 우지형, 김재완, 윤석태, 신현우, 이규태, 최삼식, 임경성, 김노수, 이진우, 김인규, 최광준, 박복홍, 임근수, 송태욱, 박정서, 최성수
6. 試驗檢査部門(시험검사부문)	우제린, 박형식, 김영주, 장철식, 김상용, 하완식, 노정익, 박순빈, 육본규격검사과장
7. 消費者代表(소비자대표)	서울대학교 사대, 이화대학, 숙명대학 가정학과 주임 또는 피복담임교수, 장명욱, 김용철

2) 국제 관련한 일

중공공정사학회(中國工程師學會)의 50주년 행사와 관련한 서신교환에 한국섬유공학회(Korean Society of Textile Technology)의 공식 명칭이 대외적으로 1961년 10월 26일 자로 쓰였다.

4. 사단법인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Korean Association of Textile Engineers & Chemists)의 창립

1963년 1월 31 오후 2시 당시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이었던 국립공업연구소(국립공업기술표준원의 전신으로 현 방송통신대학교 자리)의 연우회관으로 60~7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홍정모 외 20명의 이사 선출과 다과회가 겸해진 초창한 모임이었다.

3개 조간 일간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및 경향신문에 각 5,000원으로 안내 광고를 내어 다음 내용을 예고하고, 국립공업연구소 강당에서 총회를 통해서 한국섬유공학회(Korean Society of Textile Technology)를 사단법인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Korean Association of Textile Engineers & Chemists)로 개명하고 창립하였다.



Figure 1. 홍정모 회장의 개회사.



Figure 2. 한국섬유공학회 창립 기념사진(연우회관).



Figure 3. 장석운 회장의 개회사.

韓國纖維科學技術協會
創立總會開催案内

謹啓

新年을 맞이하여 江湖諸賢의 健康을 仰祝하나이다. 今般 纖維工業의 科學技術을 發展向上시키고 會員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여 아울러 現下 當面한 經濟開發計劃에 이바지하는 目的下에 纖維工業에 關係하는 科學技術者를 總網羅한 協會를 結成하고자 韓國纖維科學技術協會 創立總會를 左記의 如히 開催하오니 本趣에 贊同하시는 諸位는 無渭參席하여 주시기 敬望하나이다.

記

1. 時 日 1963年 1月31日(木) 下午 2時
1. 場 所 國立工業研究所 講堂
1. 附議案件
 - ① 會則議決
 - ② 任員選出
 - ③ 1963年度事業計劃書 및 收支豫算書承認

1963年1月27日

韓國纖維科學技術協會
創立發起人代表 洪 貞 模
連絡處 서울特別市中區小公洞74番地
京鄉甞당508號室
舊 韓國纖維工學會
電話②2597番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
창립총회 개최 안내

근거

신년을 맞이하여 강호제현의 건강을 앙축하나이다. 금반 섬유공업의 과학기술을 발전향상시키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아울러 현하 당면한 경제개발계획에 이바지하는 목적하에 섬유공업에 관계하는 과학기술자를 총망라한 협회를 결성하고자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 창립총회를 좌기외 여히 개최하오니 본취지에 찬동하시는 제위는 무위참석하여 주시기 경망하나이다.

기

1. 시 일 1963년 1월31일(목) 하오 2시

1. 장 소 국립공업연구소 강당

1. 부의안건

- ① 회칙의결
- ② 임원선출
- ③ 1963년도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승인

1963년1월27일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

창립발기인대표 홍 정 모

연락처 서울특별시중구소공동74번지

경향빌딩508호실

구 한국섬유공학회

전화②2597번

이렇게 탄생한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의 사무실은 총무이사 이덕기(신한화섬(新韓化纖) 주식회사, 후에 대한화섬(大韓化纖) 주식회사로 바뀜, 이사)님의 회사를 학회사무실로 쓰였는데, 위치는 조선호텔 옆에 있는 경향신문빌딩의 508호였다. 또한 학회업무의 실무직원은 당시 육군사관학교 기계과 교수로 전역을 앞둔 공석봉(전 한국패션협회장) 님이 학회직원의 일을 제 2차 이사회(1963.12.6)의 결과에 따라 맡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학회사무실은 당시로서는 별도의 사무실을 준비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총무이사의 재직 처를 옮겨가게 되었는데 겨우 1978.5.6.에야 한국과학기술회관 501호로 정식 사무실을 갖게 되면서 상임 직원으로 방관석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김민주 국장과 박성숙 실장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다. 그간의 학회사무실과 당시의 총무이사 및 보조자를 보면,

- 총무이사(회장 홍정모) 이덕기(신한화섬주식회사, 경향빌딩 508호), 공석봉(무보수 지원)
- 총무이사(회장 홍정모) 이덕기(신한화섬주식회사, 해남빌딩 215호)
- 총무이사(회장 장석운) 노정익(국립공업연구소 겸직과, 동승동 현 방송통신대학교), 박신용 등(무보수 지원)
- 총무이사(회장 김문상) 김노수(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 공릉동 현 과학기술대학교); 이진원, 음이현(직원으로 일부 지원)

- 학회장 노정익(인하대학교, 1978.5.6., 한국과학기술회관 501호): 방관석(사무직)

5.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하에 창간호 “纖維(섬유)” 발간

회장 홍정모의 창간사를 통해서 그간 사정을 정리해 본다.

우리紡織技術者들이技術協會를創設한지도於焉間 19년이만 긴歲月이 흘렀고 그동안世界纖維工業은第二次大戰以後革新的인發展을 보게되어只今은科學的인方法에 의한新纖維를繼續發明,生産,商品化하여世界纖維工業界는人工新纖維時代로大革新轉換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纖維工業技術의發達을考察하여 볼 때 18世紀産業革命에 의한家内工業에서動力과新機械의發明으로因한企劃工場工業으로轉換되었던時期를第一纖維革命期라 부르면 1884年 “프랑스”의 “샤르도네”氏(Chardonnet)가 처음으로人造絹絲의生産을工業적으로成功시키어人造絹絲가出現한時期를第二纖維革命期라 부르고第二次大戰後 오늘날合成纖維의驚異的인發展 특히 “포리프로피렌”(Polypropylene)纖維가出現됨에 따라所謂第三纖維革命期라 불리우게 되고 있다. 우리가 1946年大韓紡織技術協會를創設한以後約20年동안에 이와 같이世界纖維工業界는大革新變遷한 것이다.

오늘날 이와 같은發展을 갖어오게함에는科學의發達과 이의技術과의緊密한結合에因한 것으로 오늘날現代物質文明의 발달은科學單獨만으로도 성취할 수 없고 또技術單獨만으로도 이룩할 수 없는 것으로 오로지科學은技術과의結合,總合化만으로써達成할 수 있게된 것이다. 또 그反面 20世紀後半期인現代의技術은科學과結合되지 않고서는現代技術으로서存在할 수 없다.現代의技術을 “科學技術”이라고 할 만큼現代의技術은科學과密接한相關關係性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科學技術”이란新用語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現代에 있어서 우리纖維工業技術者들은大韓紡織技術協會를發展의으로解散하고韓國纖維科學技術協會로改編創設한것도 이에因한 것이다.

一面 우리나라纖維工業發展相을 볼 때 비록 8.15解放으로因한社會混亂, 6.25動亂으로因한破壞, 4.19, 5.16兩革命等を 겪었으나 오늘날飛躍的인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나라工産額의過半을 차지하는重要한工業部門이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纖維工業技術者들이社會樣相을外面하고 오로지各自 맡은바職務에만充實하게臨해 왔다고確言한다.

其間大學出身의新進技術者들이 많이輩出되어現在纖維工業技術者總數는約650名으로推算되며 또各大學,研究所 및試驗所에서는 이미相當한研究業績을 내놓았고繼續研究活動中에 있음을 기뻐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또한第三共和國의誕生과 더불어現政府에서는經濟發展과科學技術의振興이야말로 서로密接한關係性이 있음을再認識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落後된經濟構造下에서産業의技術化의土臺를 닦기爲하여서는科學技術의振興이必要함을強調하면서科學技術振興五箇年計劃을立案實施中이며新憲法에는經濟科學審議會를設置하도록 했고 또科學技術者資格基準法,産業標準化等の實施로科學技術의育成과國家産業製品의品質改善 나아가生産能率의向上을期하고 있다.

이와 같이國家는國家經濟發展을 위하여科學技術振興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時點에 있어서 우리纖維工業技術者들은國家大方針에順應하여技術者로서國家事業에 이바지하고자韓國纖維科學技術協會를創設,社團法人團體로法的인手續을 밟는中이며本會事業目的에 따라機關誌“纖維”를創刊하게 된 것이다.本誌의使命은 해마다細分化하고專門化하여가는世界纖維工業의動向을收錄하여海外技術의導入紹介와國內의研究論文을整理하여國內外에紹介함과同時に研究의技術化,普及 및本會業務狀況을會員에게通報하는 것은勿論 우리나라經濟發展向上에基盤이 되는科學技術振興에의 “길”을 열어보고자함에 있다.

이번創刊되는纖維工業技術誌인 “纖維”第一號를發刊함에 있어서業界의有志여러분의物心兩面의協助로써發刊되게 되었음에深甚한謝意를表하며 다음第二號부터는우리會員各自의自立自助의精神으로써發刊될 것을期待하며創刊辭에代하는 바이다.

우리방직기술자들이기술협회를창설한지도어언간 19년이만 긴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세계 섬유공업은 제1차 대전이후 혁신적인 발전을 보게되어 지금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신섬유를 속속 발명, 생산, 상품화하여 세계 섬유공업계는 인공신섬유시대로 대혁신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섬유공업기술의 발달을 고찰하여 볼 때 18세기 산업혁명에 의한 가내공업에서 동력과 새기계의 발명으로 인한 기획공장공업으로 전환되었던 시기를 제1섬유혁명기라 부르면 1884년 “프랑스”의 “샤르도네”씨(Chardonnet)가 처음으로 인조견사의 생산을 공업적으로 성공시키어 인조견사가 출현한 시기를 제2섬유혁명기라 부르고 제2차대전후 오늘날 합성섬유의 경이적인 발전 특히 “포리프로피렌”(Polypropylene)섬유가 출현됨에 따라 소위 제3섬유혁명기라 불리우게 되고 있다. 우리가 1946년 대한방직기술협회를 창설한 이후 약20년동안에 이와 같이 세계 섬유공업계는 대혁신변천한 것이다.

오늘날 이와 같은 발전을 갖어오게함에는 과학의 발달과 이의 기술과의 긴밀한 결합에 인한 것으로 오늘날 현대물질문명의 발달은 과학단독만으로도 성취할 수 없고 또 기술단독만으로도 이룩할 수 없는 것으로 오로지 과학은 기술과의 결합, 총합화만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된 것이다. 또 그 반면 20세기 후반기인 현대의 기술은 과학과 결합되지 않고서는 현대기술로서 존재할 수 없다. 현대의 기술을 “과학기술”이라고 할 만큼 현대의 기술은 과학과 밀접한 상관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이란 신 용어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대에 있어서 우리 섬유공업기술자들은 대한방직기술협회를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로 개편 창설한것도 이에 인한 것이다.

일면 우리나라 섬유공업발전상을 볼 때 비록 8.15 해방으로 인한 사회혼란, 6.25 동란으로 인한 파괴, 4.19, 5.16 양혁명등을 겪었으나 오늘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나라 공산액의 과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공업부문이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섬유공업 기술자들이 사회양상을 외면하고 오로지 각자 맡은바 직무에만 충실하게 임해 왔다고 확언한다.

기간 대학출신의 신진 기술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현재 섬유공업 기술자 총수는 약650명으로 추산되며 또 각 대학, 연구소 및 시험소에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업적을 내놓았고 계속 연구활동중에 있음을 기뻐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또한 제3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현정부에서는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진흥이야말로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재인식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낙후된 경제구

조하에서 산업의 기술화의 토대를 닦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의 진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을 입안실시중이며 신협법에는 경제과학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또 과학기술자자격기준법, 산업표준화등의 실시로 과학기술의 육성과 국가산업제품의 품질개선 나아가 생산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는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진흥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섬유공업기술자들은 국가대방침에 순응하여 기술자로서 국가사업에 이바지하고자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를 창설, 사단법인단체로 법적인 수속을 밟는중이며 본회사업목적에 따라 기관지“섬유”를 창간하게 된 것이다. 본지의 사명은 해마다 세분화하고 전문화하여가는 세계섬유공업의 동향을 수록하여 해외 기술의 도입소개와 국내의 연구논문을 정리하여 국내외에 소개함과 동시에 연구의 기술화, 보급 및 본회 업무상황을 회원에게 통보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발전향상에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진흥에의 “길”을 열어보고자함에 있다.

이번 창간되는 섬유공업기술지인 “섬유” 제1호를 발간함에 있어서 업계의 유지여러분의 물심양면의 많은 협조로써 발간되게 되었음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다음 제1호부터는 우리회원 각자의 자립자조의 정신으로써 발간될 것을 기대하며 창간사에 대하는 바이다.

본 총회에서 선출된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 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당시의 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명	직책	소속
홍정모	회장	삼광직물주식회사 사장
김병운	부회장	경성방직주식회사 전무
서정익	부회장	동일방직주식회사 사장
김학서	부회장	대아산업주식회사 사장
이덕기	총무이사	신한화섬주식회사 이사
육영수	편집이사	국립공업연구소 염직과장
김문상	이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공학과 교수
장석윤	이사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학부 섬유공학과 교수
박형식	이사	대한방직협회 부설 방직시험검사소 소장, 한국섬유기술연구소 전신
강우향	이사	
김중규	이사	대전방직주식회사 사장
강창섭	이사 겸 편집위원	삼양사 상무이사
우범식	이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공학과 교수
김상길	이사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학부 섬유공학과 교수
김지봉	이사 겸 편집위원	금성방직주식회사 상무이사
김옥순		
이종룡	이사	원풍모방주식회사 공장장
성일석		
우재민	이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공학과 교수
이진우	이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공학과 교수

성명	직책	소속
임한일	이사	상공부 섬유과장
노정익	편집위원	국립공업연구소 염직과장
최석환	편집위원	국립공업연구소 공업연구관
이규태	편집위원	
임광규	편집위원	육군기술연구소
하완식	편집위원	국립공업연구소

6. 학회지의 정기간행물 등록

학회의 임원진이 구성되면서 학회지의 정기간행물등록과 사단법인 등기 건인데, 학회지의 정기간행물 등록은 1963년 12월 20일에 학회지 ‘纖維(섬유)’를 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신)에 등록 신청한 지 5개월여 만인 1964년 5월 4일에 정기간행물 등록이 접수되면서, 1964년 6월 10일 논문 5편, 기술논문 총 6편, 총설 6편 등 들이 실린 학술지‘纖維(섬유)’가 제1권 제1호로 발간되었다.

이렇게 기반 구축되는 과정에 1964년 8월 19일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사단법인 설립신청서를 제출한바 동년 9월 30일 문교부(현 교육부, 경북궁 구 총독부 청사)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서를 받고 이어 10월 27일 법원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로 등기를 완료케 되었다. 이렇게 발족한 사단법인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는 같은 법인체인 대한광산학회(현 한국자원공학회)와 함께 국내 유일한 법적 구속력을 띤 학술단체가 되었다. 당시 몇몇 학술단체들이 있긴 하였으나 이들은 대부분이 법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의 임의단체로 활동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는 학회와 같이 교육부의 감독 관리하에 사단법인으로 활동한 학회는 대한광산학회뿐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출발한 전문지 纖維(섬유,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extile Engineers & Chemists)는 1967년도까지 통권 6호를 발행하고 학회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섬유과학기술협회에서 사단법인 한국섬유공학회로 발전적으로 바꿈을 1967년 8월 29일 문교부로부터 관련 정관 개정 승인을 받은 후 동년 9월 12일에 법원등기를 마치면서 학회지도 纖維工學會誌(섬유공학회지,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Textile Engineers & Chemists)로 바뀌게 되었다.

창간 당시 공보부예의 등록 내용은 창간해인 제1권은 연 1회 발행하는 것이었고, 제2권부터는 연 2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변경 등록하였었다. 그러나 1967년엔 학회의 재정 여건상 등록 요

건인 2권을 발행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실은 폐간이라는 통보를 받게 된 결과로 纖維(섬유)에서 纖維工學會誌(섬유공학회지)로 명칭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뼈아픈 역사를 기록해 둔다.

지금은 혈어서 경북궁으로 복원되었으나, 조선총독부로 사용하였던 자리에 있던 당시 정부종합청사 2층 고등교육국 산하 사회교육과가 그즈음 학회를 관장하고 얼마씩 보조하였었다. 여기에 보조받기 위해서 드나들었다. 학회는 대한화학회, 광산학회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또한 학회지 출판의 관장 업무는 정부청사 좌편 별동에 있던 공보처가 담당하면서 학회지 발간 시 매 2권을 납본하였다. 이 의무가 결여되면 폐간될 수도 있었다. 당시 학회 이사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땐 각자 얼마씩 출연하면서 학회지 발간이 지속되게 했음을 옛이야기로 간직하고 싶다. 이 섬유공학회지는 제5권 1호(1968.3)에서 제9권 3호(1972.12)까지 발행하면서 제9권에서는 목표인 4호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폐간에 직면하여 제10권 1호(1973.4)부터는 韓國纖維工學會誌(한국섬유공학회지)로 또 제호를 바뀌어 오늘에 이르게 된다.

다음에 그 내역을 정리해 본다.

연도	학회지 이름	권수	호(발행월)	비고
1964	纖維	1	1(6)	
1965		2	2(5,12)	
1966		3	2(5,12)	
1967		4	1(4)	
1968	纖維工學會誌	5	2(3,12)	제호는 如初 金膺顯(여초 김응현)의 글
1969		6	2(5,10)	
1970		7	2(5,11)	
1971		8	2(4,11)	
1972		9	3(5, 9, 12)	
1973	韓國纖維工學會誌	10	4(4, 6, 9, 12)	제호는 이남순 여사의 글
1974		11	4(3, 6, 9, 11)	
1975		12	4(3, 6, 9, 12)	
1976		13	4(4, 6, 9, 12)	
1977		14	4(2, 4, 7, 12)	
1978		15	4(4, 6, 9, 12)	
1979		16	4(3, 6, 9, 12)	
1980		17	4(3, 6, 8, 12)	
1981		18	4(3, 6, 9, 12)	

연도	학회지 이름	권수	호(발행월)	비고
1982		19	6(2, 4, 6, 8, 10, 12)	
1983		20	6(2, 4, 6, 8, 10, 12)	
1984		21	6(2, 4, 6, 8, 10, 12)	
1985		22	6(2, 4, 6, 8, 10, 12)	
1986		23	6(2, 4, 6, 8, 10, 12)	
1987		24	6(2, 4, 6, 8, 10, 12)	
1988		25	8(2, 4, 6, 8, 9, 10, 11, 12)	
1989		26	8(2, 4, 6, 8, 9, 10, 11, 12)	
1990		27	12(매달 발행)	연 12호로 중간
1991		28	12(매달 발행)	
1992		29	12(매달 발행)	
1993		30	12(매달 발행)	
1994		31	12(매달 발행)	
1995		32	12(매달 발행)	
1996		33	12(매달 발행)	
1997	한국섬유공학회지	34	12(매달 발행)	학회명을 한글로 갱신
1998		35	12(매달 발행)	
1999		36	12(매달 발행)	
2000		37	12(매달 발행)	

7. FIBERS AND POLYMERS 등록

한국섬유공학회의 국제화를 위하고 장기적으로는 Scientific Citation Index에 등록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영문지 발간을 준비하였다. 삼양사의 장학재단 법인인 양영회로부터 2000년에 받은 3000만 원의 후원은 영문지 FIBERS AND POLYMERS를 2000년엔 준비하는 단계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00년에는 준비단계로 연 2회를, 2001년도부터는 연 4회를 발행하였다.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4회에 걸쳐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로부터 25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후원 받았는데, 이는 이 영문지가 국제적 수준에 도달케 함에 보탬이 되었다.

이렇게 FIBERS AND POLYMERS는 Impact Factor 2.5(2022)로 25권까지 이른 월간 국제적인 학술지로 2023년부터는 세계적인 학술지 출판사 Springer사가 자원 출판 보급하고 있다.

8. ‘섬유기술과 산업’지 발간

이와 더불어 섬유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1997년부터는 업계를 위한 기술지로 “섬유기술과 산업”을 연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여 지금까지 다음과 같이 발간되고 있다.

연도	발행 월	권	호	특집
1997	3	1	1	섬유복합재료
	6		2	부직포
	9		3	합성섬유 신기술
	12		4	패션과 QR
1998	3	2	1	섬유기계
	6		2	신염색 가공기술의 비전
	9		3	정보산업과 일차원 소재
	12		4	감성과 의류제품
1999	5	3	1/2	계측과 자동화
	11		3/4	환경과 섬유산업
2000	6	4	1/2	생명공학과 섬유소재
	11		3/4	섬유패션산업의 e-비즈니스

9. 분과활동의 활성화

한국섬유공학회는 섬유재료분과위원회(위원장: 마석일 교수, 임승순 교수), 섬유공정분과위원회(위원장: 박신웅교수, 서문호 교수), 전통직물분과위원회(위원장: 민길자 교수)의 3개 분과위원회가 활동하였는데, 전통직물분과위원회에서 “한국전통직물”을 1998년 11월 26일자로 창간호를 발행하면서 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문화재 위원이었던 민길자 교수는 본 창간 논문발표회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급서하셨다. 우리나라 전통 직물의 계승을 위해서 대단히 애석함을 금할 수 없다.

다음에 분과 위원회별 활동을 요약한다.

- (1) 섬유재료분과위원회(마석일 교수): 학회 주관 ‘合成纖維(합성섬유)’ 발간 등
- (2) 섬유공정분과위원회(박신웅교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후원 국제섬유전시회 참관 조사 보고(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 (3) 전통직물분과위원회(민길자 교수): ‘한국전통직물’ 발간

Table 1. 전통직물분과 위원회 연구 활동

권호 (학술원)	제목	저자	게재회지
1998	한국전통섬유제품의 발굴(II) —한국전통문양염색직물의 도안 발굴과 복원—	민길자	한국섬유공학회 전통직물분과위원회
1998	천연염색 기술동향 및 향후의 과제 —천연염색의 색상다양화 및 염색물의 견뢰도 증진기술—	엄성일	한국섬유공학회 전통직물분과위원회
1998	사진자료를 통해 본 양잠 및 제사에 사용된 기구(변천)에 대한 고찰	박재명	한국섬유공학회 전통직물분과위원회
1998	동이인이 최초로 잠사(蠶絲)를 이용하고 양잠(養蠶)을 시작했다. —사적(史籍)기재를 중심으로—	화덕공, 역자; 심연옥	한국섬유공학회 전통직물분과위원회

10. 섬유사전의 발간

섬유산업은 국부적인 산업으로 국민경제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산업이다. 수출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전 수출액의 약 30~40%를 점하는 대단히 막중한 산업이다. 이러한 선상에서 한국섬유공학회는 1974년 9월 14일 평위원회에서 섬유사전간행위원회(纖維辭典刊行委員會) 규약을 의결 받고 1979년 2월 20일에 섬유사전 편찬 과정의 첫 단계로 섬유용어집(纖維用語集)을 발간하였다(김노수 회장). 이 용어집 발간을 위한 표제어 제정에만도 154회의 편집심의분과 위원회와 1,384명의 연인원이 동원된 방대한 사업으로 단일 전공으로 본 이공계열 관련 사전으로선 국내 최대의 작업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하여 1982년 2월 10일에 국내 초유의 국판 1,098페이지의 섬유사전(纖維辭典)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본 사업에는 섬유사전 간행, 총무분과, 재무분과, 편집심의분과위원회 등에 총 222명이 3년여 동안 참여하였었다. 또한 1974년 9월 14일 평위원회에서 의결된 섬유사전간행위원회 규약을 근거로 하여 그동안 2차에 걸친 개정판(改訂版)과 보유편(補遺篇)의 중간이 있었다. 이상은 모두 석판 인쇄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엔 근본적인 치유 차원에서 이전의 지형방식을 완전히 탈피하고 새로운 섬유용어들이 보강된 신섬유사전(新纖維辭典)이 2002년에 발행되었다.

그간 경과 과정을 요약해 본다.

- 1979년 2월 20일에 섬유사전 편찬 과정의 첫 단계로 섬유 용어집을 발간하다(김노수 회장).
- 1982년 2월 10일에 섬유용어집 발간 3년여 만에 21,638 단어의 섬유사전을 발간하다(노정익 회장).
- 1989년 10월 20일에 그동안 용어들에 대한 몇몇 해설들과 용어들을 보강하여 섬유사전 개정판을 발간하다(송석규 회장).
- 1991년 12월 31일 첫 발간 후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그동안 취합되었던 섬유 용어가 70년대에 발굴된 것이 대부분이었는바, 이에 날로 급속히 발전하는 섬유 기술에 맞게 약 4000 용어 수집 해설한 보유 편을 발간하다(고석원 회장).

다음에 섬유사전 발간 및 보유편 발간에 봉사한 회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고문	한국과학기술단체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대한방직협회 회장 한국화섬협회 회장 한국소모방협회 회장 대한메리야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한국섬유섬유공학회 전회장 김문상 한국섬유섬유공학회 전회장 장석운 한국섬유섬유공학회 전부회장 우범식
----	---

[섬유사전 간행위원회]

위원장	노정익
부위원장	박성양
전위원장	김노수
위원	강창섭 고석원 공석봉 금진호 김각중 김상용 김지봉 김진우 박신웅 박종식 송석규 염삼주 윤문구 이재곤 장영도 장철식 정수종 정원규 최석환 최영엽 하완식 한봉수 허영우 홍성일

[총무분과위원회]

위원장	박신웅
전위원장	고석원
전위원장	김상용
위원	양대성 이면우 이정률 장영도 장철식 정달용 이진원 방관석

[재무분과위원회]

위원장	박성양
위원	강교희 경세호 공석봉 김각중 김봉호 김영훈 김용익 김정석 김현철 김희산 노정익 문택상 박희규 서민석 심해진 우범식 윤영중 이덕기 이성수 장철식 정원규 조승식 최석환 허영우 홍용운

[편집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재곤
전위원장	강창섭
전위원장	김지봉
위원	강동훈 강복춘 경세호 고석원 공석봉 국윤환 권기정 권태빈 김갑진 김경환 김공주 김광수 김기병 김기정 김노수 김덕리 김무연 김문상 김상용 김석근 김성연 김영석 김영조 김영호 김운배 김운연 김인규 김진준 김재문 김재완 김재중 김재홍 김정배 김정원 김중수 김진우 김태훈 김풍일 김홍균 노정익 유계열 류운영 마석일 모상영 문인곤 박병기 박상표 박신웅 박연흠 백낙준 백승욱 백학기 백희길 서문호 서보영 성수광 서용부 서주인 소병량 손영일 송석규 송영배 송재수 송주호 송태욱 신광호 신상호 신현세 심해진 안태완 안현민 양대승 양철곤 염삼주 오연호 오태진 우범식 우지형 원영무 위기찬 유덕환 유계춘 유홍근 육영수 윤문구 윤중범 이광배 이규상 이달우 이대규 이대수 이덕용 이동재 이봉제 이범우 이상규 이상익 이순원 이승조 이의소 이정률 이정민 이진우 이호남 임광규 임원자 임진모 임택선 장동호 장병호 장석운 장영도 장철식 전영관 정달용 정두진 정순영 정원규 정재욱 정진영 정찬의 정천룡 정철우 정희곤 조순채 조승식 조용석 조원호 조현태 조현욱 조 환 주 강 최광준 최병관 최병두 최병필 최석철 최석환 최순평 최영엽 최익상 최철호 하완식 한두현 한정련 한호동 허상열 허영우 허 유 홍성일

[*섬유사전(보유편) 편집심의위원회]

위원장	김갑진
편집위원	김영호 박신웅 박영환 손태원 윤기종 윤재윤 이의소 주창환 허 유
심의위원	고석원 김갑진 김상용 김진우 류운영 유홍근 마석일 박신웅 박연흠 박영환 서문호 서정권 손태원 송석규 양철곤 이광배 이재곤 임승순 조현태 하완식 홍성일
집필진	강복춘 강태진 고석원 김갑진 김덕리 김병철 김상용 김영호 김중섭 김진우 김한도 남중희 류운영 마석일 박신웅 박연흠 박영환 박종진 배기서 서문호 서정권 설 창 성화경 손태원 송석규 신혜순 오태진 윤기종 윤재륜 윤중범 이덕래 이두성 이의소 이재곤 이종문 이한섭 이호정 임무산 임승순 전동원 전병철 전봉수 전한용 조규하 조원호 조재정 조재환 조현태 조현욱 주창환 최창남 하완식 허 유 홍성일

11. 섬유공학 학술지 “纖維(섬유)” 발간 이전의 섬유교육과 섬유연구 활동

11.1. 1945년 전후의 섬유산업

“섬유공학”이란 학문은 공학 중의 하나로서 “공학”이란 “과학”의 체계적인 응용에 의하여 자원(natural resources)을 효율 있게 이용하여 부(富)를 생성하게 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섬유공학이란 섬유 자원을 효율 있게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및 산업자재를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원리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섬유공학의 전제(前提)는 그 생산 방법이 기계화되어 있고 다량 생산이 가능한 섬유산업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섬유산업이 시작된 것은 수천 년 동안의 수공업 시대를 보내고 난 후인 19세기 말엽부터인데 이때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약 100년이 되는 시기이다. 이때 우리는 오랜 쇠국정책에서 깨어난 개화기로 당시 해외 열강(列強)에 의하여 문호 개방이 강요되던 때이다. 1945년 이후 현재까지의 섬유공학의 연구, 교육, 학회 등의 발전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1945년 전과 직후 섬유산업의 개황, 학술연구, 교육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1945년 전후의 섬유산업 현황

1945년 직전의 우리나라 섬유공업은 주로 면방직공업, 모직공업과 견직 및 인견사 공업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면방직공업이 그 대종으로 이것은 토착 민족 자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과 일본의 대륙 진출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구성된다.

1945년 8월 15일 당시 면방직 공장으로 완전 가동이 가능했던 회사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회사와 공장		설립
경성방직(京城紡織)	영등포공장	1919년
동양방직(東洋紡織)	인천공장	1932년
동양방직(東洋紡織)	서울공장	1936년
종연방직(鍾淵紡織)	서울공장	1936년
송고실업(松高實業)	개성공장	1922년
조선방직(朝鮮紡織)	부산공장	1918년
대일본방직(大日本紡織)	서울공장	1939년

[참고] 장석운, 우지형, 한국 근대과학기술사 조사연구(섬유분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2, 38, 343.

이들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시설은 면방직 추수(鍾數)가 약 234,000이고 직기는 약 8,600대였다. 이 무렵에 도입되어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었던 방직기와 면직기가 1945년 8월 15일 이후 설치 완료되어 1949년 현재 방직기는 316,000 추, 면직기 9,000여 대가 되었다. 그러나 1950년 6·25 동란으로 면방직 시설은 전 시설의 약 70%가 되는 면방기 약 218,000 추, 면직기 5,700대가 파괴되어 잔여 시설은 면방기 98,000 추, 면직기 3,300대에 불과하였다. 동란 후 1952년부터 면방직 시설이 복구되기 시작하여 1957년 말에는 면방기 434,000 추, 면직기 약 8,400대가 되었으며 순차적으로 증설을 거듭하여 1962년에는 면방기 543,000 추, 면직기 9,600대가 되었다가 드디어 1972년에는 면방기가 100만 추를 넘었으며 면직기는 11,000대에 이르렀다. 인조견사, 즉 레이온은 1935년 북선제지화학공업(北鮮製紙化學工業)(주)이 인견용 펄프 공장을 함경북도 길주(吉州)에 설치하고 처음으로 1938년에 23,470톤이 생산되었으며 1939년에는 대일본방직(주) 청진공장에서 7,124 추의 비스코스 방사 시설로 처음으로 국내에서 레이온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아세테이트 레이온은 종연실업(鍾淵實業)(주)이 평안북도 신의주에 공장을 세워 1940년부터 6,500톤/년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40~1945년에 우리나라에는 총 9,000여 대의 견직기가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중 약 2,000대가 레이온직을 제직하였다.

1945년 전에는 모방직공업 중 소모방(梳毛紡) 공업은 없었고 방모방(紡毛紡) 공업만 있었는데 조선모직(물(mule) 정방기 1,990 추 및 가공기), 조선신흥방직(물 정방기 450 추 및 가공기), 조선물산(물 정방기 450 추 및 직기), 태양모직(물 정방기 3,375 추 및 직기), 동양섬유공업(물 정방기 450 추 및 자카드 직기) 등 5개 회사가 있었는데 해방 후 1950년에는 7개 회사로 증가하였다. 소모방직 시설도 1955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여 1956년에는 총 회사 수가 5개로 되어 소모사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Table 2. 면방직 추수

연도	추(Spindle) 수
1956	21,412추
1957	37,040추
1960	45,136추
1963	54,244추
1967	167,844추

합성섬유는 1945년 이후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하여 합성 섬유사를 수입하여 제직, 제편(製編)하여 오다가 1960년대부터 아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은 섬유가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Table 3. 합성섬유 제조 시작 연도, 회사 및 생산량

연도	섬유종류	회사명	생산량(톤/일)
1963	나일론	한국나이롱	3,2
1967	아크릴	한일합섬	7,5
1968	폴리프로필렌	제일화섬	1,5
1968	아세테이트	선경합섬	5,5
1968	폴리에스테르	대한화섬	6,0

이와 같이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면, 모를 비롯한 모든 천연 섬유와 나일론, 폴리에스테르를 위시한 모든 인조섬유의 생산이 이루어져 섬유공학이란 학문의 본격적인 연구와 교육의 전제조건이 성립하게 되었다.

(2) 섬유산업의 위상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한국전쟁 이후의 폐허로부터 수출입을 통해 우리나라를 부흥시킨 우리의 기간(基幹), 수출 주도형의 생활 문화 산업으로 수출 지향 정책에 부응하여 1960-70대엔 총 수출액의 30~40%로 중화학공업으로의 유도에 중요한 선도 산업이었다. 섬유에서 의류 완제품에 이르는 전 분야에 걸쳐 고른 생산 기반을 갖춘 연간 110억 불 이상의 무역수지를 기록하는 효자 산업이었다. 국민경제의 기반 산업으로 총 수출의 10% 이상, 제조업 고용의 15%, 제조업 생산의 7%를 점유하는 산업이었다.

Table 4. 섬유산업의 수출 규모와 비중

연도	총 수출액 (억불), A	섬유 수출액 (억불), B	비중 (B/A)
1967	3.20	1.37	47.8
1969	6.29	2.3	36.9
1973	32.25	12.42	38.5
1975	50.81	18.69	36.8
1977	100.47	30.39	30.2
1983	244.45	60.50	24.7
1985	302.83	68.40	22.6
1988	606.96	141.81	23.4

Table 4. Continued

연도	총 수출액 (억불), A	섬유 수출액 (억불), B	비중 (B/A)
1990	650.16	147.66	22.7
1991	718.70	156.80	21.7
1992	766.32	158.34	20.7
1993	822.36	160.00	19.5
1994	960.13	174.52	18.2
1995	1,250.58	186.45	14.9
1996	1,297.15	181.03	14.0
1997	1,361.64	187.46	13.8
1998	1,323.13	168.51	12.5
1999	1,436.85	174.02	12.7
2000	1,722.68	187.28	10.9
2001	1,504.39	160.13	10.6
2011	4,663.84	139.80	3.0
2013	5,478.70	156.96	2.9
2016	4,954.26	138.07	2.8
2018	6,048.60	140.80	3.2
2020	5,124.98	112.38	2.2
2022	6,835.85	123.01	1.8

11.2. 1945년 전의 섬유교육과 “섬유 관련 연구기관” 활동

우리나라 섬유산업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의 효시는 국립공업연구소이며 이어 1966년 2월 20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로 이어진다. 다음에 국립공업연구소에 대하여 요약한다.

국립공업연구소는 1883년(고종 20년)에 화폐주조 및 금속광물의 분석·가공·제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환국 소속의 ‘분석시험소’를 설치한 것을 시발로 하여 현재의 ‘기술표준원’으로 변천되었다. 현재의 기술표준원은 분석시험소에서 국립공업연구소, 국립공업기술원에 이르기까지 공산품의 기술개발 및 시험·분석·감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6년 중소기업청 소속기관 국립기술품질원으로 변경되면서 공업표준과 품질안전업무가 추가되었다. 관련하여 섬유 관련 업무는 염직부, 염직공예과, 염직과, 섬유공업과로 이어지는 동안 여러 번의 정부기구를 개편하는 동안 섬유 관련 과의 소속도 바뀌면서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의 기구도 전문 분야 중심의 과 명칭

에서 업무 중심 과로 변천하면서 섬유 관련 업무는 문화서비스 표준과에서 1~2명의 섬유 전문인에 의하여 업무가 수행되었다.

다음에 1883.8.7(고종 20년)의 분석시험소에서 출발하여 1910.8.(조선총독부공업전습소), 1912.4.1(중앙시험소), 1915(중앙시험소)와 공업전습소는 승격되어 관립 전문학교 급 경성고등공업학교로 이관되면서 중앙시험소는 1946.4.8(중앙공업연구소), 1961.10.2(국립공업연구소)로 바뀌어 간다. 다음에 고종 20년(1883년)의 전환국 소속 분석시험소 설치로 시작된 중앙시험소, 중앙공업연구소의 1945년 이전부터 1963년 “纖維(섬유)“ 학술지 발간까지의 섬유 교육 및 연구 현황을 정리한다.

Table 5. 초기 섬유 시험 연구와 섬유인의 양성

분석 시험소	주요 내용
1883. 8. 7 (고종 20년)	전환국 소속 분석시험소 설치 화폐주조 및 금속광물의 분석, 제련, 가공업무를 담당
공업전습소	주요 내용
1907. 2. 1	농상공부 소관 농상공학교의 공과가 분리되어 공업전습소(工業專習所)로
1910. 8	한,일병합의 결과 그 명칭을 조선총독부 공업전습소로 개칭
중앙시험소	주요 내용
1912. 4. 1	조선총독부 공업전습소는 중앙시험소로 부치 5부(응용화학, 염직, 요업, 분석, 양조)로 구성
1915	전문학교 관제 발표로 중앙시험소 부치 공업전습소의 교육부문은 경성공업전문학교로 이관 경성공업전문학교는 승격되어 관립 전문학교급 경성고등공업학교가 된다.
중앙공업연구소	주요 내용
1946. 4. 8	중앙시험소에서 중앙공업연구소로 개칭
1946. 11. 1	염직공예과로부터 기계금속부분과 공예부분을 분리하고, 기계공작과와 식품공업과 증설(총 7과)
1949. 4. 26	상공부장관의 감독하에 중앙공업연구소 설치 서무과, 무기화학과, 유기화학과, 요업과, 염직과, 기계공작과, 식품공업과(총 7과)
국립공업연구소	주요 내용
1961. 10. 2	중앙공업연구소를 국립공업연구소로 개칭 중전 7과(과)를 2부 7과(과)로 개편
1972. 5. 15	염직과를 섬유공업과로 개칭

11.3. 섬유공학 교육 제도

(1) 1945년 이전의 섬유 교육

1) 1945년 이전의 섬유 교육 기관

1899년에 대한제국 정부는 상과와 공과를 갖춘 상공학교(商工學校)를 설립하였는데, 이 학교는 예산결산으로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1904년 일본 제국에서 들어온 차관으로 상공학교에 농과를 가설하여 농상공학교(農商工學校)로 다시 개교하였다. 1906년 통감부의 기획에 따라 농상공학교의 공과가 분리·확대되어 1907년 2월 1일 공업전습소 관제가 반포됨으로써, 공업전습소(工業專習所)로 개편되었다.

공업전습소는 1907년 4월 21일에 개교하였으며, 1908년에 현재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사인 공업전습소 교사가 완공되었다. 공업전습소 설립 당시에는 조선인 교관이 약간 명 있었으나 이후 모두 일본인 교관으로 교체되었다. 대한제국 말기 일본은 공업전습소를 일본의 도교고등공업학교와 같은 수준의 학교라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일본의 직공학교와 같은 단기 실습 위주의 기술 전습기관과 같았다. 하지만 공업전습소에서는 한반도에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공업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1907학년도 제1회 모집에서는 50명의 학생을 모집했는데 원서출원자가 1,200여 명이었고, 2회 모집에서는 80명 모집에 2,000여 명, 4회 때는 55명 모집에 2,500여 명이 응시했다. 당시 재학생들은 조선 최초의 공학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공업연구회’라는 모임도 결성했다. 또, ‘工業界(공업계)’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전문 기술 잡지를 발간하였다. 공업전습소 1회 졸업생 배출은 1909년 4월 20일 하여 2년 제 공학도를 최초 배출하였다.

당시 졸업생은 염직과 8명, 도기와 9명, 금공과 7명, 목공과 7명, 응용화학과 3명, 토목과 12명이며 황성신문 1909년 4월 21일 자에 실렸다. 공업전습소는 경술국치 이후에도 동일한 체제로 운영되다가 1916년 4월 1일 경성공업전문학교로 승격되면서 관립 전문학교가 되었다. 이후 1922년 4월 1일 경성고등공업학교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1944년 4월 6일 경성공업전문학교가 되었다. 이는 1940년대 초반까지 한반도 유일의 고등공업교육 기관이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경성광산전문학교와 함께 대학 기관인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에 흡수되었으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으로 재편되었다.

경성고등공업학교의 교사는 현재 서울특별시 동숭동에 있었다. 이 자리는 원래 대한제국 전환국 기계시험소가 있던 곳이었다. 1906년 통감부 건축과의 설계로 1908년에 공업전습소

교사(본관)와 기숙사, 관사가 완성되었다. 교사는 르네상스식의 목조 건물이며, 대한제국 때 건설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목조 건물이다. 1912년 4월부터는 공업전습소와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가 함께 교사(본관)를 사용했고, 1916년 공업전습소가 경성고등공업학교로 승격되면서 본관 전체를 사용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상공부 국립공업연구소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본부로 사용되고 있다.

1910년 이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 공업전습소에서 수업한 인재 중에는 우국정신(憂國精神)이 투철한 인사들도 많았는데 이들이 재학 중 1908년 9월에 “공업연구회(工業研究會)”를 발기하고 매월 2회씩 회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월보도 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회의마다 회장이 참석인원을 확인하고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공업 각 분야의 기술 연구 논문 또는 총론 4~5편을 발표하였다.

이 공업연구회의 초대 회장은 염직과 제2기생인 박찬익(朴贊翊)으로 그는 1904년 관립상공(官立商工) 학교에 재학 중, 국권 회복을 위하여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퇴학당하고 1907년 조직한 신민회(新民會)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다시 1908년 관립 공업전습소에 입학하여 1910년에 졸업했다. 이때 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하자, 중국 간도(間島)로 망명하였다가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 되었던 독립운동가이었다.

박찬익이 이끄는 이 연구회의 회원은 전부 117명이었는데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 장	박찬익
부회장	정해설
총 무	박승진, 이용훈
평의원	김연필, 김성준, 최익진, 고희철, 서홍룡, 이필하, 심상대, 석송환, 성홍석, 박승익, 박영진, 윤영규, 임항재, 배상언, 이종태, 이종선, 장익현, 최주현, 남중희, 윤정섭
간 사	이기범, 이기덕, 장명중
서 기	김원식, 손형순, 박상순
회 계	배상언, 강택선

편집부 임원은 아래와 같다.

편집부장	신규식
검정원	안형중, 황형수, 최익진, 김연필, 이종승, 장익현, 이범규, 김원식, 이필하, 이용훈, 최천필, 남중희
편집원	성홍석, 선영익, 박승익, 홍상의

이와 같이 공업전습소 학생 전원이 공업연구회 회원이 되고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찬성원(贊成員)이 되어 이 연구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으며 임원과 편집부 임원들은 공업연구회의 운영 계획과 월보(月報)인 “공업계”를 창간 발행하면서 찬성원의 지도와 후원을 받았다.

찬성원은 모두 147명으로 이 중에는 유길준, 장지연, 지석영, 신채호, 민영휘, 신규식, 한규설, 이상재, 김가진, 안창호, 김규식, 최남선, 오세창, 권동진, 남궁억, 김인, 한상용, 이갑, 상호, 안형중, 현국 등 저명 우국 인사와 공학 선구자들이 들어 있어 학생들의 공업 기술교육을 대대적으로 찬성, 협조, 후원하였다.

공업연구회의 월보를 간행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1909년 1월 28일 “공업계”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 기술 월간지가 간행되었다. 발간사는 공업계월보사(工業界月報社) 사장 겸 편집인은 신규식(申圭植)이고 발행인은 전술한 염직과 제2기생인 박찬익이었다. 오늘 현재로 이 “공업계”가 창간된 지 115년이 지났는데 이 창간호에 실린 논설을 보면 선인들의 100년 전 과학기술에의 열의를 읽을 수 있으며 창간사와 축사로부터 선인들의 공업 기술을 통한 애절한 애국정신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은 “공업계”를 “실업 발전적 기관”이요, “各工自習之寶典(각공자습지보전)”이라고 공업계의 의미를 고하였다.

“공업계” 제2호(1909년 2월 28일 발행)에도 축사는 계속되어 박동환(朴東煥), 이돈구(李敦求)의 축사와 “頌工業界(송공업계), 이종린(李鐘麟), “祝工業界(축공업계), 신규식, “工業界(공업계)의 新光鮮(신광선), 皇城子(황성자)”, “工業(공업)의 大義(대의), 황형수(黃瑩秀)” 등과, 또 제3호(1909년 4월 28일 발행)에는 “頌工業會與報(송공업회여보), 양기탁(梁錫鐸), “祝工業界(축공업계), 강석룡(姜錫龍)” 등에서 이 월보 발행을 축하, 환영하였는데 이들이 이렇게 창간호에서 제3호까지 축사를 게재한 것은 공업 기술의 인식과 이의 발전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工(공)”의 實(실)이 生命(생명)의 “本(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土農工商(사농공상) 중에 “工(공)”을 最急先務(최급선무)로 행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工業傳習所(공업전습소) 학생은 我國初有(아국초유)의 工學者(공학자)이므로 我國(아국) 初有(초유)의 “業(업)”을 창건하여 우리나라 영구의 基(기)를 확립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양기탁), <古今天下(고금천하)의 모든 물질이 모체가 없이 生(생)하는 것이 없는데 萬般(만반)의 “學(학)”이 어찌 원시의 “母(모)”가 없으리오? 이 仁慈(인자)한 “母(모)”가 바로 공학이요, 즉 萬學(만학)의 母(모)는 “工學(공학)”이다>라고 역설하면서 <工學報(공학보)가 나와서 國中(국중)에 보급되니 이 아니 축하하

고 환영하지 않으리오》라고 말하는 등(이철주(李喆柱)), 모두 동포의 기한(飢寒)을 구하고 국가부강(國家富強)을 이루어 대한만세(大韓萬歲) 태평(太平)을 연연(咽咽)하게 부르짖고 있다.

공업전습소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특별과를 설치하여 수업과 실습 시간의 부족을 보충하려고 하였으나 그래도 부족한 교육 내용 때문에 결국 조선총독부는 1915년 “경성공업전문학교 규정”의 법령을 제정하여 공업전습소의 특별과를 개편, 확대, 승격시켜 1916년에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새로 설치하고 중앙시험소에 부치되었던 공업전습소는 경성공업전문학교에 부속시켰다.

즉 1916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경성공업전문학교는 신입생을 모집하여 “高等(고등)의 學術技藝(학술기예)”를 가르치고 “조선의 공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되어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헛되이 高遠(고원)한 學理(학리)를 피하고 簡明(간명)을 旨(지)로, 實地(실지)에 유용한 知識(지식)”을 가르치는 데 그쳤다. 즉, 실업에 종사하는 적당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일제의 의도가 있었다. 그리하여 교과과정도 학문의 기초원리나 이론보다 실제 공업에 필요한 수법(手法)의 교육에 전념하였다.

경성공업전문학교는 그 후 1922년 경성고등공업학교(京城高等工業學校)로 개칭되었다가 1944년 다시 경성공업전문학교(京城工業專門學校)로 교명을 바꾸었다. 경성공업전문학교의 교직원들은 교장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일본인이었고 방직학과에는 공업전습소 제1회 졸업생인 장익현(張翼鉉)이 있었으며 시설로는 기직(機織)시험실, 염색화학시험실, 기직공장, 색염공장 등이 있었으며 실험장치로는 사용(絲用), 생사용(生絲用), 직물용 강신도측정기, 꼬임측정기, 섬도측정기, 섬유수분측정기, 천칭(天秤), 현미경, 일반 화학용기구, 제사기(製絲機), 호부기(糊付機), 사조반기(絲條斑機), 연사기(撚絲器), 정경기(整經機), 수직기(手織機), 역직기(力織機), gas singeing기, 호부건조기(糊付乾燥機), 염출기(艶出機) 및 기타 정이가공기(整理加工機), 염포기(染布機), 탈수기(脫水機), 고압정련기(高壓精練機) 등이 있었다. 경성공업전문학교는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발족할 때 이에 흡수되고 방직학과는 섬유공학과로 개칭되었다.

한편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에 설립되었으나 공학계는 일제가 2차대전 확전에 대한 군수공업 개발을 목적으로 이과(理科) 감류(甲類)란 명칭으로 1938년 기계, 전기, 응용화학, 물리, 광산야금, 토목과를 개설하여 오다가 1946년에 국립서울대학교로 흡수되었다.

2) 격동기의 섬유 기술인

188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외국의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배우려는 사조가 생기기 시작하여 정부의 관비 유학생을 일본으로 파견하여 과학기술을 배우게 하였다. 유학은 일본을 위시하여 유럽, 미국으로 확산하였으며, 관비 유학이거나 사비로 이루어졌다. 미국 유학은 189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정부의 후원이나 보호를 받는 정부 관련 유학생으로 시작하여 일본 유학 중 미국으로 건너가 유학한 경우와 Hawaii 이민이 본격화하면서 공부하기 위하여 이민 대열에 합류한 경우 등 다양하다. 특히 섬유 관련분야는 의식주 해결의 첫 단계로 방직을 우리 손으로 해결하려는 정신으로 이 분야의 진출이 상당히 있었다.

① 초기 일본 유학생

일본의 전문학교로 유학한 이들은 박정선(朴正銑), 최규익(崔奎翼), 안형중(安衡中), 강영우(康永祐) 등으로 이들 모두 특별과 정으로 동경고등공업학교(東京高等工業學校) 염직과를 졸업했는데, 박정선은 17세에 전보학당(電報學堂)에 입학한 후 1889년 졸업하고 일어 학교에 입학한 다음 일본 경응의숙(慶應義塾)으로 유학하고 1898년 보통과를 졸업했다. 동년 동경고등공업학교 염직과에 입학하고 1899년 졸업한 후 일본 군마현(群馬縣) 동생(桐生) 삼산염직공장(森山染織工場)을 실습한 후 1900년 귀국하여 관립 상공학교 교관(判任官, 판임관)으로 임명되었다.

최규익은 1895년 일본 유학생으로 피선되어 같은 해 일본 동경으로 유학하러 가서 동경 경응의숙에서 수학한 후 그다음 해 보통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동경고등공업학교 염직과에 입학하고 1899년 같은 학교를 졸업한 다음 제직 회사와 마방직 회사를 견습한 후 귀국하여 의학교 제약원과 유행병 예방위원으로 임명되고 1906년 의학교 교관(판임관)으로 임명되었다.

안형중도 1895년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 동경의 경응의숙에 입학, 보통과를 졸업하고 동경고등공업학교 염직과에 입학, 1899년 졸업하였다. 지방 공장을 견학하고 1904년 농상공학교 교관(판임관)으로 임명되었다. 1907년에는 관립 공업전습소로 전임되어 기사(奏任官, 주임관)가 되었다.

강영우도 1895년 학부 파견 유학생으로 선임되어 경응의숙에 입학하고 보통과를 졸업한 후 동경고등공업학교에 입학하고 1899년 동교 염직과를 졸업하였다. 대판(大板, 오사카)지방에서 실지(實地) 연구 후 귀국하여 한성제직회사(漢城製織會社)를 설립하고 1904년 임시 군용철도검찰위원으로 서임되고 황실재산정리국 주사로 서임되었다.

② 공업전습소 졸업생

위에서 언급한 섬유 관련 일본 유학생들의 특징은 모두 동경고등공업학교에 유학했던 것으로 이들이 귀국하여 그 일부가 관립 공업전습소에서 교육을 담당하여 1909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니 경술국치 이전에 졸업한 제1회(1909년 4월)와 제2회(1910년 4월) 졸업생들의 명단과 졸업 후 직장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이들을 보면 기수(技手), 기사(技師), 교사(教師)들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전공과 관련이 없는 직장의 임시직이었다. 그 후 제3회(1910년 12월) 졸업생부터 제7회(1914년 12월) 졸업생까지의 명단을 기록하면 아래와 같다.

Table 6. 공업전습소 졸업생

졸업 회수	연도	업직과 본과 졸업생
제1회	1909	金義增(평북) 忠南道 技手 (충남도 기수)
		任恒宰(전북) 忠南道 機業 教師 (충남도 기업 교사)
		李昇圭(경기) 慶南道 機業 教師 (경남도 기업 교사)
		金鶴秀(경기) 早島物産製造會社 (조도물산제조회사)
		張翼鉉(경북) 工業傳習所 技手 (공업전습소 기수)
		尹台燮(경기) 朝鮮總督府 學務課 (조선총독부 학무과)
		南基洪(충북) 慶北道 技手 (경북도 기수)
제2회	1910	李昌林(경기) 서울 進明女學校 教員 (진명여학교 교원)
		金基鴻(충남) 自營, 忠南 公州 (자영, 충남 공주)
		金載顯(경북) 臨時土地調查局 (임시토지조사국)
		任勳宰(평남) 臨時土地調查局 (임시토지조사국)
		劉漢興(경기) 京城府廳 (경성부청)
		朴贊翊(경기) 間島學校 教員 (간도학교 교원)
		朴世鎭(경기) 京畿道驪州郡廳書記 (경기도 여주군청 서기)
		朴應圭(경기) 黃海道 機業 教師 (황해도 기업 교사)
		石松煥(경기) 臨時土地調查局 技手 (임시토지조사국 기수)
		李泰熙(충남)
		李容璋(경기)
		韓國鎭(경기) 工業傳習所 技手 (공업전습소 기수)
제3회	1910. 12	黃完秀, 金永培, 洪重杓, 吳聖傑, 申鉉佑, 康濟義, 朴長燾, 潘基燾, 金鳳熙, 康聖如, 卓任朝, 金載健, 李仁善, 李鐘和
		權重喆, 尹京楮, 張翼準, 康元健, 鄭惠采, 柳之秀, 金相國, 朴俊榮, 權五淵

Table 6. Continued

졸업 회수	연도	업직과 본과 졸업생
제5회	1912. 12	韓苾洙, 金鍾大, 千珍玉, 俞鎮瑛, 金正基, 高元鳳, 金成允, 洪斗杓, 金正淳
제6회	1913. 12	鄭雲鶴, 南春燮, 韓辰範, 咸昌奎, 全承杓, 金尙潤, 崔性俊, 孫在燾, 權重煥, 權泰榮, 金鳳漢, 尹龍燮, 韓喆, 尹泰連, 白貞鎭, 成範錫, 鄭瀚朝, 玄尙鶴, 南胤熙, 李陽善, 李漢禎
제7회	1914. 12	柳濤錫, 白基錫, 李用洛, 李漢昇, 李翼鍾, 韓明鎭, 金在鳳, 趙聲壽, 李鍾虎, 李起壽, 成基彦, 吳義允, 李炳秀, 陳泰根, 張東煥, 張秉紀, 禹泳柱, 權泰翼

이들 졸업생 중 장익현(제1회)은 1917년 중앙시험소에서 “朝鮮産(조선산) 植物染料(식물염료)로서의 신나무(楓樹(풍수)) 葉(엽)의 利用(이용)”, 또 1919년에는 위의 논문의 제2호를 발표했으며, 임항재(任恒宰, 제1회), 박찬익(제2회), 한국진(韓國鎭, 제2회) 등은 공업전습소에서 기사로 활약하였다.

③ 1945년 이전의 일본 유학생

1945년 이전의 일본 유학생으로 고등공업학교, 즉 전문학교 섬유 관계 졸업자들은 아래와 같다.

또 일본에서 섬유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 후 섬유 관련 업무를 한 학사들을 살펴본다.

- 윤주복은 경성고등공업학교 방직학과를 1923년 졸업하고, 일본 구주제국대학 응용화학과를 졸업(1929년)한 후 중앙시험소에 근무하다가 경성방직회사 건설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사장으로도 근무하였다.
- 이승기(李升基)는 1931년 경도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 공업화학과를 졸업하고, 1938년 박사학위를 받은 후 계속 PVA 섬유 연구를 하고 서울대 공대에 근무하다가 월북하였다.
- 김동일(金東一)은 동경제국대학 응용화학과를 졸업하고 (1933년), 경성방직주식회사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1942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재생섬유소 섬유에 관한 연구를 한 바 있다.
- 장석윤(張碩潤)은 경성고등공업학교 방직학과를 졸업하고 (1938년), 곧이어 1941년 일본 동경공업대학 방직학과를 마치고 평양의 종연방직 등에서 근무하다가, 1945년 이후 경성공업전문대학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한양대학교 교수로 정년퇴임하였다.

Table 7. 1945년 이전의 일본 유학생

졸업생	학교	졸업연도	졸업 후 활동
李康賢(이강현)	東京高等工業學校(동경고등공업학교) 紡織學科(방직학과)	1911년	경성방직 재직시 漢陽木(한양목), 漢陽紗(한양사) 제조, 출시
具明會(구명회)	東京高等工業學校(동경고등공업학교) 紡織學科(방직학과)	1921년	조선방직 근무
崔士烈(최사열)	桐生高等工業學校(동생고등공업학교) 紡織學科(방직학과)	1925년	朝陽織物(조양직물) (강화도) 근무
李東濟(이동제)	桐生高等工業學校(동생고등공업학교) 紡織學科(방직학과)	1926년	
林慶星(임경성)	東京高等工業學校(동경고등공업학교)		中央工業研究所(중앙공업연구소) 技監(기감)으로 재직
楊在興(양재흥)	東京高等工業學校(동경고등공업학교) 紡織學科(방직학과)		惠陽(혜양)섬유 설립
朴台錫(박태석)	東京高等工業學校(동경고등공업학교) 色染學科(색염학과)		
李載赫(이재혁)	桐生高等工業學校(동생고등공업학교) 紡織學科(방직학과)	1930년	
崔三植(최삼식)	桐生高等工業學校(동생고등공업학교) 色染學科(색염학과)	1931년	충남대학교 공대 섬유공학과 교수로 재직
金理洮(김리조)	桐生高等工業學校(동생고등공업학교) 紡織學科(방직학과)	1930년	서울대학교 공대 섬유공학과 교수로 재직
鄭浩宗(정호종)	東京高等工業學校(동경고등공업학교) 紡織學科(방직학과)	1933년	부산 조선방직 근무
千篤根(천독근)	東京高等工業學校(동경고등공업학교) 紡織學科(방직학과)	1932년	木浦織物(목포직물)
徐廷翼(서정익)	名古屋高等工業學校(명고옥고등공업학교) 紡織學科(방직학과)	1932년	東一紡織(동일방직) 회장 역임
成見哲(성견철)	福井高等工業學校(복정고등공업학교) 紡織學科(방직학과)	1932년	朝鮮織物(조선직물) 안양공장 근무

- 김문휘(金文輝)는 1943년 경도제국대학 섬유화학과를 졸업하였다.
- 김태열(金泰烈)은 1944년 경도제국대학 섬유화학과를 졸업하고, 1946년에서 1950년까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근무하다가 월북하였다.
- 김상길(金相吉)은 동경공업대학 방직학과를 졸업하고 (1945년), 대구대학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한양대학교 섬유공학과 교수를 역임하다가 흥한화섬(興韓化纖, 후에 원진레이온으로 바뀜)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바가 있다.
- 송법섭(宋法燮)은 경도제국대학 섬유화학과를 졸업하고 (1945년), 경성대학에 근무한 바가 있다.

- 전상진(田相鎭, 1928년생)도 일본 동경공업대학 방직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방직에 근무한 바가 있다.

④ 국내 졸업생

국내에서는 공업전습소 이후 1916년부터 1945년까지 3년 제인 경성공업전문학교(명칭이 경성고등공업학교로 되었다가 다시 경성공업전문학교로 바뀜) 방직학과를 졸업하여 배출된 기술인이 90인 정도 되었다 한다. 여기에 경성공업전문학교 임직과 1952년까지의 서울공대 섬유공학과 선배들을 요약하여 우리의 초기 연구력을 표기해 본다.

Table 8. 1945년 이전의 국내 졸업생

졸업 연도	학교	졸업 기수	졸업생
1918	경성공업 전문학교 염직과	1	한국인 박승민 외 2인
1919		2	한국섬유공학회의 전신이라 할수 있는 대한섬유공업연구회 창립 주도한 안호준 외 2인
1920		3	한국인 김규선 1인
1921		4	한국인 박창배 외 1인
1923	경성고등 공업학교	1	김학서 ; 대아산업공사(우리나라에서 재카드 직물류의 생산 및 관련서적 출판) 윤주복 ; 대한섬유공업연구회 2대 회장, (주)경성방직 사장 외 한국인 2인
1924		2	유홍(국회의원, 가수 김상희 시부) 외 2인
1925		3	한국인 박임갑 1인
1927		5	한국인 김선익 외 1인
1928		6	송남엽 ; (주)조선견직 부사장 홍정보 ; 한국섬유공학회 회장, (주)고려방직공사(방림방 전신)사장, (주)삼광직물사장 외 한국인 1인
1929		7	원용석 ; 경제기획원 장관, (후에 Caterpillar중장비 사장) 외 한국인 3인
1930		8	박형식 ; 한국섬유기술연구소(KOTTI) 초대소장 외 한국인 2인
1931		9	김재권 ; 전남대학교 교수 강우형 ; 한국파이버 사장 외 한국인 1인
1932		10	한국인 4인
1934		12	김문상 ; 서울대 교수, 학술원회원 진재홍 ; (주)경방 고문 외 한국인 1인
1935		13	김병운 ; (주)경방 전무(면방직학 저자) 외 한국인 1인
1936		14	김익극 ; 동인염직 공장장 외 한국인 6인
1938		16	장석운 ; 한양대 교수(동경공업대학 졸업), 학술원회원 김지선 ;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초대소장 외 한국인 2인
1939		17	강창섭 ; 경성방직, (주)삼양사 전무 육영수 ; 국립공업연구소 염직과장, 과기처 심의위원 우범식 ; 서울대 교수 전효섭 ; 상공부 공업국장 외 한국인 2인
1940		18	김지봉 ; 금성방직 공장장, KOTTI소장 노광환 ; 상공부 섬유과장
1941		19	한국인 5인
1941, 12		20	한국인 1인
1942		21	김진국 ; 금성방직 공장장 우지형 ; 단국대학교 교수 이종룡 ; 한국모방 공장장 외 한국인 4인
1943, 12		22	이덕기 ; 대한화섬 전무, 섬유공학회 총무이사(회장 홍정보) 김재완 ; 전남대학교 교수 유춘선 ; 대구공고 교사 외 한국인 1인

Table 8. Continued

졸업 연도	학교	졸업 기수	졸업생
1944,9	경성공업 전문학교 방직학과	1	소병량 ; 전남대학교 교수 임한일 ; 상공부 섬유과장 외 한국인 2인
1945,9		2	김인규 ; 동인염직, 부천전문대 섬유과 교수 외 한국인 3인
194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문부 섬유과	1	임광규 ; 경희대학교 교수 외 4인
1948		2	김남진 ; ㈜전남방직 전무
1949		3	김정석 ; ㈜동일방직 전무 이 건 ; ㈜대전방직 전무 정수완 ; 신신산업사 대표 김영석 ; 숭실대학교 교수 홍용운 ; 삼원상사(숭실대학교 강사) 김영조 ; 동일방직 외 23인
1950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공학과	4	김희산 ; 청구대학교(후에 대구대학교와 영남대학교로 합병) 교수 노정익 ; 국립공업연구소(염직과장), 인하대학교 교수 우제린 ; 호주 NSW대학교 교수, 경희대학교, 호주 시드니 거주 임유빈 ; ㈜금성방직 황찬섭 ; ㈜신성통상 공장장
1952		6	김노수 ; 서울대학교 교수 차경모 ; 한국다반 사장, 동일레나운 사장 외 19인

(2) 1945년 직후의 섬유공학도의 배출

1945년 해방 직후 경성공업전문학교가 한국인에게 인계되어 운영되다가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발족할 때 흡수되어 방직학과는 섬유공학과로 개칭되어 섬유공학과 1학년의 입학은 1947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섬유공학과 제1회 졸업은 1950년 5월이었는데 이들 졸업생은 국립서울대학교 발족 시 편입되었던 경성공업전문학교 재학생이 그 대부분을 이루었으며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섬유공학과 대학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서울공대 섬유공학과 (1950년) 졸업생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으로는 제4회이며 섬유공학과로는 제1회 졸업생으로 이들이 명실공히 대학의 첫 학사 졸업생들이다. 이는 1950년대에 전남대학교(1952년), 부산대학교(1953년), 충남대학교(1954년), 한양대학교(1958년) 등으로 이어지면서 섬유공학과를 설치하였고 이들 대학교에서 배출한 섬유공학 학사들이 6.25 전쟁에 파괴된 섬유공업을 부활시킨 역군들이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은 1947년 국립서울대학교가 출발할 때부터 있었지만 박사과정은 1968년부터 설치되었다. 6·25 동란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섬유산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섬유공학과가

전국의 여러 대학교에 설치되기 시작하였는데 1970년대 초까지의 섬유공학과 설치 연도와 그 소속 대학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9. 섬유공학과 설치 연도와 설치 대학교

설치 연도(년)	소속 대학교 공과대학
1952	전남대학교
1953	부산대학교
1954	충남대학교
1958	한양대학교
1960	영남대학교
1962	전북대학교
1967	숭실대학교
1968	성균관대학교
1968	단국대학교
1968	건국대학교
1969	경희대학교
1970	인하대학교

12. 섬유공학 연구 활동

1945년 전 일제하의 중앙시험소, 해방 후 국립중앙공업연구소, 국립공업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한국인으로 안호준, 장익현, 김재권, 임경성이 보인다. 다음 한국섬유공학지“纖維(섬유)” 학술지 1963년 발간 이전까지의 섬유공학 연구 활동을 본다.

(1) 중앙시험소, 국립중앙공업연구소, 국립공업연구소의 연구 활동
국립공업연구소는 공업 기술의 기본인 과학연구, 기술자의 양성, 공업기술의 지도 및 일 반 산업과 재무, 사법, 행정 등 제 분야에 대한 과학 기술적 협조 등 많은 업적을 남기었으며 또

그간에 발표된 연구 논문은 우리나라 공업 기술의 기본적인 귀중한 문헌이 되었다. 해방 전에 발표된 중앙시험소의 섬유 관련 연구 논문의 저자는 한국인도 약간은 존재하나 대부분 일본인이 연구한 것으로 그 당시의 사정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한국인은 공업전습소 여직과 본과 제1회 졸업생 (1909년) 장익현, 경성공업전문학교 제2회 안호준, 경성공업고등학교 제9회 김재권이 연구원으로 종사하였다, 중앙시험소(1915~1943), 국립중앙공업연구소(1948~1960), 국립공업연구소(1961~1967)가 工業技術研究題目輯(공업기술연구 제목집)에 발표된 논문을 연도별, 보고서별 연구 제목과 저자를 기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Table 10. 중앙시험소 연구 제목(1915~1943)

번호	연도	No	제목	연구자	비고	
					회	호
4	1915	4	柞蠶製絲(작잠제사)에 對(대)하여	樸山國大郎	1回	4號
5	1915	5	新羅織(신라직)에 對(대)하여(第(제)1報(보))	井野勇大郎, 白石金石	1回	5號
6	1915	6	絹織手(견직수)기용자동권취 조정기에 對(대)하여	今井敏郎	1回	6號
7	1915	7	柞蠶織(작잠직) 及(급) 柞蠶交布製造試驗(작잠교포제조시험)에 對(대)하여	室田武隣	1回	7號
9	1915	9	莞草(완초)의 染色(염색) 及(급) 軟化法(연화법)	吉永彦太郎	1回	9號
23	1917	4	槐花(괴화)의 色素(색소)에 對(대)하여	吉永彦太郎	2回	4號
25	1917	6	朝鮮産植物染料(조선산식물염료)로서의 ‘신나무’葉(엽)의 利用(이용)	上田嘉助 장익현	2回	6號
34	1917	15	柞蠶布製織試驗(작잠포제직시험)	室田武隣	2回	15號
35	1917	16	手紡麻苧絲(수방마저사)의 漂白試驗(표백시험)	白石金八	2回	16號
44	1919	3	朝鮮産大麻苧麻(조선산대마저마)의 性狀(성장)에 對(대)하여	上田嘉助	2回	16號
50	1919	9	朝鮮産大麻苧麻(조선산대마저마)의 漂白試驗報告(표백시험보고)	上田嘉助	3回	9號
59	1919	18	朝鮮産(조선산) 植物(식물) 染色料(염색료)로서의 ‘신남’楓葉(풍엽)의 利用(이용)(第(제)2報(보))	上田嘉助 장익현	3回	18號
73	1922	1	生絲品位(생사품위) 及(급) 製織試驗成績(제직시험성적)	室田武隣	5回	1號
74	1922	2	毛皮染色試驗成績(모피염색시험성적)	大石義光	5回	2號
77	1923	1	苧麻布經絲(저마포경사)로서의 紡織大麻絲(방직대마사)의 應用(응용) 大麻布經絲(대마포경사)로서의 紡績大麻絲(방적대마사)의 應用(응용)(基(기) 1)	室田武隣 안호준	6回	1號
103	1928	6	明紬製織(명주제직)에 對(대)한 各種織機(각종직기)의 比較試驗(비교시험)	室田武隣	10回	6號
104	1928	7	朝鮮向(조선향) 織物試驗成績(직물시험성적)(基(기) 1)	龍川昇	10回	7號
105	1928	8	朝鮮向(조선향) 絹地色染試驗(견지색염시험)	龍川昇	10回	7號
112	1930		朝鮮向(조선향) 織物試驗成績(직물시험성적)(基(기) 2)	室田武隣	11回	5號
113	1930	6	朝鮮向(조선향) 麻布(마포)의 品位(품위)와 製織改良標準(제직개량표준)	室田武隣	11回	6號
114	1930	7	朝鮮向(조선향) 麻布(마포)의 精練(정련) 及(급) 漂白試驗(표백시험)	室田武隣	11回	7號
115	1930	8	支那苧布(지나저포)의 現狀(현상)	室田武隣	11回	8號

Table 10. Continued

번호	연도	No	제목	연구자	비고	
					회	호
116	1930	9	佛國絹業調査報告(불국견업조사보고)	室田武隣	11回	9號
118	1931	1	朝鮮産(조선산) 明紬(명주)의 品位比較(품위비교)와 製造改良標準(제조개량표준)	室田武隣	12回	1號
120	1931	3	明紬精練(명주정련)의 改良裝置(개량장치)와 그 精練法(정련법)	室田武隣	12回	3號
124	1932	4	市販家庭染料(시판가정염료)의 品質調査(품질조사)	室田武隣	13回	2號
126	1934	2	支那(지나) 日本(일본) 朝鮮産苧麻(조선산저마)의 手紡製織試驗(수방제직시험)	室田武隣	14回	2號
128	1934	4	朝鮮産染料植物試驗(조선산염료식물시험)	김재권	14回	4號
130	1935	2	織物製織試驗(직물제직시험)	船越順治	15回	2號
135	1936	4	朝鮮(조선)의 纖維工業(섬유공업)	船越順治	16回	3號
140	1937	2	本鹽産人造纖維紡績(본염산인조섬유방직)의 品質(품질) (第(제)1報(보)) 强伸度(강신도)에 관한 實驗(실험)	船越順治	16回	6號
187	1943	1	蠶繭(잠견)의 品質(품질)이 織布(직포)에 미치는 影響試驗(영향시험)	長瀬敏重	22回	1號
188	1943	2	이 기간 섬유, 염업, 유무기 등 분야별 22회까지 총 188편의 논문 발표		22回	

Table 11. 국립중앙공업연구소 연구 제목(1948~1960)

번호	연도	No	제목	연구자	비고
222	1952	8	硫化染料(유화염료)에 관한 研究(연구)	김찬구	제5집
263	1958	9	纖維(섬유)의 樹脂加工(수지가공)에 對(대)하여(第(제)1報(보)) 樹脂處理液(수지처리액)의 濃度(농도) 及(급) 熱處理溫度(열처리온도)에 依(의)한 防皺性(방추성)과 抗張力(항장력)의 影響(영향)	임경성, 송태옥	제8집
264	1958	10	Nylon과 S.F 混紡品(혼방품)의 硫化染料(유화염료)에 依(의)한 同色染(동색염)	임경성, 이영준	제8집
265	1958	11	酸性染料(산성염료)에 依(의)한 나일론染色(염색)에 對(대)하여	장석운, 하완식	제8집
288	1959	21	織物加工用(직물가공용) 尿素(요소)-포름알데히드 縮合物(축합물) 製造(제조)에 關(관)하여	성좌경, 노익삼, 현승자	제9집
290	1959	23	纖維素織物(섬유소직물)의 水溶性(수용성) 셀룰로스 處理(처리)에 依(의)한 永久硬化加工(영 구경화가공)에 關(관)하여	임경성, 송태옥	제9집
291	1959	24	Figured Rayon Cloque 試織(시직)에 關(관)하여	육영수	제9집
292	1959	25	羊毛染色(양모염색)에 있어서의 羊毛纖維(양모섬유)의 重量減少(중량감소)와 그 防止(방지)에 對(대)하여	하완식	제9집
293	1959	26	스크린 스텐실製作(제작)에 關(관)하여	임경성, 최성수	제9집
294	1959	27	aniline black 防染(방염)과 그 綿布(면포)의 强度(강도)에 미치는 影響(영향)에 對(대)하여	임경성, 함승호	제9집
311	1960	14	Melamine formaldehyde 樹脂加工(수지가공)에 있어서의 그 染色物(염색물)의 日光堅牢度 (일광견뢰도)에 關(관)하여(第(제)1報(보)) (直接染料(직접염료)의 化學構造(화학구조)와 樹脂處理染色物(수지처리염색물)의 染色堅牢度 (염색견뢰도)와의 關係(관계))	장석운, 하완식	제10집
312	1960	15	紡績絲(방직사)의 不均制度(불균제도)에 關(관)한 研究(연구)(第(제)1報(보)) (綿絲(면사)의 굵기不均制度(불균제도)가 强度分散度(강도분산도)에 미치는 影響(영향))	장석운, 김상용	제10집
313	1960	16	重(중)3重紋織(중문직)의 試織(시직)	육영수	제10집
315	1960	19	이 기간 섬유, 염업, 유무기 등 분야별 10집까지 총 315편의 논문 발표		제10집

Table 12. 국립공업연구소 연구 제목(1961~1967)

번호	연도	No	제목	연구자	비고
329	1962	10	纖維素織物加工(섬유소직물가공)(第(제)2報(보)) Gmc에 의한 永久硬化(영구경화) 效果(효과)에 關(관)하여	송태옥	제11집의 2
352	1962	23	合成纖維(합성섬유)의 染色(염색)에 關(관)한 研究(연구)(第(제)1報(보)) 分散染料(분산염료)에 대한 polyester纖維(섬유)의 染色(염색)	육영수, 이경수	제11집의 2
353	1962	24	紡績絲(방직사)의 不均制度(불균제도)에 關(관)한 研究(연구)(第(제)1報(보)) (國產綿絲(국산면사)의 品質(품질)에 關(관)하여)	노정익, 김상용	제11집의 2
354	1962	25	紋(문)2重平織(중평직)의 製織試驗(제직시험)	육영수, 우봉금, 이봉제	제11집의 2
362	1962	8	本絹洋緞(본견양단)의 製織試驗(제직시험)	육영수, 우봉금, 이봉제	제11집의 2
363	1962	9	纖維織物(섬유직물)의 整理加工(정리가공)(第(제)3報(보)) 모시織物(직물)의 CMC處理(처리)에 의한 永久硬化效果(영구경화효과)	송태옥	제11집의 2
367	1963	4	合成纖維(합성섬유)의 染色(염색)에 關(관)한 研究(연구)(第(제)2報(보)) (在來塩(재래염) 其性染料(기성염료)에 대한 polyacrylonitril纖維(섬유)의 染色(염색))	육영수, 유이준	제13집
368	1963	5	紋多重織(문다중직)의 製織試驗(제직시험) 1經(경)4重緯(중위) 2重織(중직)에 依(의)한 紋織效果(문직효과)	육영수, 최석환, 이봉제	제13집
389	1963	26	合成纖維(합성섬유)의 染色加工(염색가공)(第(제)2報(보))	송태옥	제13집
390	1963	27	國產棉(국산면)의 紡績性(방직성)에 關(관)한 研究(연구)	노정익, 최영엽	제13집
412	1964	20	合成纖維(합성섬유)의 染色(염색)에 關(관)한 研究(연구)(第(제)2報(보)) (Aniline Black에 依(의)한 PVA織物(직물)의 染色(염색))	육영수, 유이준	제14집
413	1964	21	輸出織物(수출직물)의 製織試驗(제직시험)에 關(관)하여	육영수, 최석환, 이봉제	제14집
413	1964	22	綿織物(면직물)의 Wash and Wear 加工(가공)	송태옥, 김영호, 김영덕	제14집
414	1964	22	織物(직물)의 性能試驗(성능시험)(磨耗强度(마모강도))	노정익, 최영엽,	제14집
434	1965	17	織物(직물)의 性能(성능)에 關(관)한 研究(연구)	노정익, 최영엽, 김영조	제15집
444	1965	27	綿織物(면직물)의 經絲糊付(경사호부)에 關(관)한 研究(연구)	송태옥, 김영덕	제15집
448	1965	31	輸出織物(수출직물)의 製織試驗(제직시험)에 關(관)하여(第(제)2報(보))	노정익, 이봉제	제15집
477	1966	29	合成纖維(합성섬유)의 衣類(의류)로서의 性能(성능)(1) (P.P.纖維(섬유)의 混紡性(혼방성))	최영엽, 노정익, 손방옥	제16집
477	1966	29	合成纖維(합성섬유)의 衣類(의류)로서의 性能(성능)(2) (P.P.纖維(섬유)의 染色性(염색성))	마석일, 송태옥, 이수자	제16집
480	1966	32	合成纖維(합성섬유)의 衣類(의류)로서의 性能(성능)(3) (P.P.纖維(섬유)의 Dress shirts로서의 性能(성능))	박신용, 노정익, 최양의	제16집
481	1966	33	絹織物上(견직물상) 크라프트重合(중합)에 關(관)한 研究(연구)	김영덕, 송태옥	제16집
482	1966	34	輸出用(수출용)하부다이(羽二重(우이중)) 織物(직물)의 試織(시직)	이봉제, 노정익, 이본영	제16집
509	1967	27	合成纖維(합성섬유)의 混紡性(혼방성)에 關(관)한 研究(연구)	노정익, 최영엽, 손방옥	제17집
510	1967	28	編織用(편직용) 國產綿絲(국산면사)의 品質(품질)에 關(관)한 研究(연구)	최영엽, 최양의, 박신용	제17집
511	1967	29	輸出用(수출용) 纖維製品(섬유제품)의 染色(염색) 및 加工(가공)에 關(관)한 研究(연구)	송태옥, 김영덕, 마석일, 이수자	제17집
512	1967	30	輸出織物(수출직물)의 製織試驗(제직시험)	노정익, 이봉제, 이본영	제17집

(2) 국방과학연구소 및 육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 활동

6.25 동란 직후 대한민국 국군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섬유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으니 곧 육해공군 군복지의 내구성, 보존성 등에 관한 연구, 염료 염색과 계면 활성제 등 섬유직물 처리제의 연구 등이 그것이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까지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기술연구소에서 보고한 연구 제목과 연구자의 목록 일부를 다음 표에 보인다.

(3) 대한방직협회의 연구 활동

1945년 8·15 이후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면방직공업이 그 대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서두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 때 남한에는 7개의 대규모 면방직 공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중 경성방직(주)과 송고실업을 제외하고 모두 적산(敵産)기업이라 이것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미 군정청의 관리기구인 “조선실업공사”를 통하여 업종별 분장 관리를 위한 “방직공업 운영부”를 설치하고 전국 방직공장의 관리와 합동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무산되었다. 그러나 당면한 원면(原綿), 기료품(機料品)의 수급 대책과 미군정의 방직공업 정책에 대한 의견 반영, 섬유제품 통제 정책에 대한 업계의 참여 등, 공동 관심사의 해결을 위하여 1947년 “조선방직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 당시 회원은 10개 면방직 업체이었는데 이 기구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서 1949년 “대한방직협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면방직 기술 연구발표회 발표 논문 6·25 동란으로 대부분

Table 13. 국방과학연구소, 육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

권호	제목	저자	게재회지
과연회보(科研彙報) 제2집 (1953)	衣料地(의료지)의 電解(전해) 漂白(표백)에 관한 소고	이경남	국방과학연구소
과연회보 제2집 (1953)	國防色染料(국방색염료) “안스라센 카-키”合成(합성)에 관한 연구	임광규, 박민철	국방과학연구소
과연회보 제2집 (1953)	洗滌劑合成研究(세척제합성연구)	지원영	국방과학연구소
과연회보 제3집 (1954)	界面活性劑(계면활성제)에 관한 연구(제2보)	이영희, 김승곤	국방과학연구소
과연회보 제3집 (1954)	防火布(방화포)에 관한 연구(第(제)1報(보))	신재두, 김형연	국방과학연구소
과연회보 제3집 (1954)	防火布(방화포)에 관한 연구(第(제)2報(보))	신재두, 김형연	국방과학연구소
과연회보 제3집 (1954)	Indanthren Blue의 合成(합성)	임광규	국방과학연구소
과연회보 제3집 (1954)	紺色(감색) 染料(염료) 合成(합성)에 관한 연구	박민철	국방과학연구소
과연회보 제3집 (1954)	界面活性劑(계면활성제)에 관한 연구(제1보)	이영희, 김승곤	국방과학연구소
과연회보 제4집 (1955)	Urea-Formaldehyde初期縮合物(초기축합물)의 製造(제조)에 관하여	임광규, 황재규	국방과학연구소
과연회보 제4집 (1955)	Urastep RI에 의한 스후織物(직물)의 樹脂加工(수지가공) 효과에 대하여	임광규, 황재규	국방과학연구소
과연회보 제5집 (1956)	染色加工(염색가공)이 纖維(섬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철식, 김선철, 한동성	국방과학연구소
과연회보 제5집 (1956)	防寒材料(방한재료)에 관한 연구(제1보)	임광규	국방과학연구소
과연회보 제5집 (1956)	訓練靴改良(훈련화개량)에 관한 연구	임광규, 송영한	국방과학연구소
과연회보 제5집 (1956)	國產流化染料(국산유화염료)에 의한 Tendering Effect에 대하여	임광규, 김용익	국방과학연구소
육기연보고 제1집(1962)	保溫性(보온성) Plush에 대하여(이의 試織(시직)을 통한 고찰)	송석규, 유계열	육군기술연구소
보고 제1집 (1962)	織物(직물)의 保溫性(보온성) 研究(연구)	송석규, 유계열	육군기술연구소
보고 제1집 (1962)	Vat染料(염료)에 의한 纖維素(섬유소) 纖維(섬유)의 染色(염색)에 대하여	이대규	육군기술연구소
보고 제1집 (1962)	綿織物(면직물)의 染色法(염색법) 研究(연구)	이대규, 김일석	육군기술연구소
보고 제1집 (1962)	國產流化染料(국산유화염료)의 評價(평가)	노정익, 김일석	육군기술연구소
제6권 (1962)	染色物(염색물)의 日光(일광)에 대한 堅牢度(견뢰도)에 관한 연구(제1보)	하완식	대한화학회지

파괴된 면방직 시설이 9·28 수복 직후 업계가 불사조처럼 재기하여 공장 건설과 섬유산업 부흥을 재빨리 이룩한 데는 “긴급재건계획”, “장기부흥계획”을 세워 순조롭게 실천한 면방직 기술진들의 활약이 매우 컸다. 이러한 우리 기술진이 그동안 악전고투하여 체득한 귀중한 경험과 기술을 업계 상호 간에 교류하여 기술 발전과 연구 의욕을 조장케 하고자 1953년 제 1회 면방직 기술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중진 기술자가 참석하여 9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래 매년 1회 또는 2회씩 1958년까지 8회를 개최하여 기술 연구개발 및 교류와 기술 향상 보급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6·25 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운 때 이러한 업계의 연구발표회는 다른 분야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대한방직협회”의 기술 발전 및 공학 학문 연구에의 획기적인 거사로 볼 수 있다. 8년 동안 모두 46건의 연구 발표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기술적인 연구를 발표한 것이나, 그중에는 “섬유와 물” 등 공학 기초 개념이 들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학계의 여러 전문가의 특별 강

연도 곁들어 있음은 관련분야의 지식을 골고루 섭취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가 있겠다. 다음 표는 면방직연구회가 연구 보고한 예이다.

13. 맺는말

사단법인 한국섬유공학회는 경성공업전문학교 염직과를 제 2회(1919년) 졸업 후 중앙공업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셨던 안호준님의 1946년 대한섬유공업연구회 창립을 주도하심이 그 뿌리로 생각되어진다. 한국섬유공학회 역사를 1945년 전후로 나누어 볼 때 전반부는 고종황제의 1883.8.7.(고종 20년)의 분석시험소에서 출발하여 국립공업연구소와 경성공업전문학교로 이어지면서 비록 일제 하이였지만 각고의 심혈로 섬유공학 연구의 기초를 이끌었고 연구력을 고창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확신한다.

본 학회의 창립 원년인 1963년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에 등

Table 14. 면방직연구회

권호	제목	저자
연구회록(1953)	꼬임에 의한 收縮(수축)과 Draft	김지봉
연구회록(1953)	原綿(원면)사용에 있어서 並掃除(병소제)와 磨針(마침) 및 넵발생의 상호관계	최재봉
연구회록(1954)	Card Gauge와 Card Stripping에 대하여	최재봉
연구회록(1954)	Roving의 Mercerization	정원규
연구회록(1954)	꼬임과 收縮(수축)이 放出番手(방출번수)에 미치는 영향	강교희
연구회록(1954)	Kirschner Beater와 Spiked Cylinder에 의한 梳綿機(소면기), 打綿機(타면기) 및 混綿機(혼면기)의 낙면 시험비교	김영조
연구회록(1954)	Sliver가 Cans에 담기는 여러 가지 형태	함인식
연구회록(1956)	紡績機(방적기) 運轉狀況(운전상황) 測定(측정)에 관한 몇가지 試案(시안)	임유빈
연구회록(1954)	綿紡(면방)에 미치는 Twist의 영향	최병두
연구회록(1954)	綿毛混紡絲(면모혼방사) 방출에 관한 시험	최병두
연구회록(1954)	精紡機(정방기)에 있어서의 Break Draft에 관하여	맹주익
연구회록(1954)	粗紡工程(조방공정)에 있어서 單紡機(단방기)와 間紡機(간방기)사용에 의한 精紡絲(정방사)에 미치는 均齊度(균제도)에 관하여	우지형
연구회록(1955)	Mote Knife와 Taker Under Casing이 落物(낙물)에 미치는 영향	최용호
연구회록(1955)	Card Stripping에 대하여	이은종
연구회록(1955)	Simplex改造(개조)에 관하여	윤해경
연구회록(1955)	梳綿率(소면율)이 製品(제품)에 미치는 영향	홍용운
연구회록(1955)	梳綿機(소면기) 注油(주유)에 대한 소고	임유빈
연구회록(1955)	Lap의 不均齊度(불균제도)가 各工程(각공정)에 미치는 영향	송영희

기된 학회는 우리 한국섬유공학회와 대한광산학회 둘밖에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뿌리가 깊은 학회이다. 1964년 6월에 첫 학회지 발간 당시에는 연간으로 발간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에서, 이제는 월간으로 발간할 정도로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적 명성의 FIBERS AND POLYMERS와 기술지 “섬유기술과 산업”까지 발간하여 산학협력을 이끌고 있다. 또한 다른 학회에서는 거의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섬유사전의 발간이라든지, 또한 2차의 한·중 공동 학술대회, 한·일 공동 학술대회에 이어 ATC, 그리고 1995.2.13~25간 북경에서 한국섬유공학회장과 중국 섬유부 차관의 공동회장으로 한·중 심포지움이 성대히 개최하고, 이어 중국방직과학원, 북경복장학원, 서안 서북 방직공학원, 항주의 절강사조공학원 및 항주 도금생사직소, 상해중국방직을 방문하였다. 이들을 통해서 중국의 연구력과 산업 현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 학회의 발전 과정을 1963년 이전을 기반 구축, ~1998 기반 확충기, ~1998 기반 확충혁신기로 나누어 본다. 저는 임기 2년의 기반 확충기 학회장을 수임하였는데, 참 힘들었다. 연간 3천여만 원 기금 조성을 하여야 운영되었다. 그래서 광고 또는 특별회비에 많이 의존해야 하나, 섬유산업은 확충되나 학회에 대한 기여는 많이 미약함이 참 아쉬웠다. 그럼에도 이제 많은 후학이 왕성한 연구열로 섬유공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 범주를 늘임으로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있음은 한국섬유공학회가 넓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사농공상(士農工商) 중에 “工(공)”을 최급선무라 하여 공업 기술교육을 고양키 위해 만들어진 공업연구회의 초대 회장으로 공업전습소 임직과 제2기생인 박찬익이 취임하고 공업전습소 임직과 제2기생 장익현과 경성공업전문학교 제2회 안호준님이 참여하였음은 우리 섬유인들의 영도성을 기억하고 싶다.

참고문헌

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2. 공업계월보사, 1909a.
3. 제국신문, 1900.
4. 조선공업협회, 1939.
5. 서울대 공과대학 섬유고분자공학과 동창회원 명부, 1997.
6. 한국섬유공학회 50년사, 한국섬유공학회, 2012.
7. 공업기술연구제목집, 1915-1967, 국립공업연구소.
8. 한국의 학술 연구(섬유공학), 대한민국 학술원, 2002.
9.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통계자료
10. 한국근대공업기술의 발달과정 -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학술원논문집(자연과학편), 2011, 50(1).
11.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공업기술정신, 학술원논문집(자연과학편), 2019, 58(1).
12. 한국섬유공학회 50년사를 위해 정리한 자료들.
13. 金丙運(김병운), 면방적, 대한섬유공업연구회, 1949.
14. 姜昌燮(강창섭), 力織機學(역직기학), 대한섬유공업연구회, 1949.
15. 대한섬유공업연구회, 京城工友俱樂部(경성공우구락부), 1920.
16. 공업계 창간호, 공업계월보사, 1909b.
17. 공업계 제2호, 공업계월보사, 1909c.
18. 공업계 제3호, 공업계월보사.
19. 경성방직 50년, 1919-1969. 경성방직주식회사.
20. 제3회 면방직기술연구회록, 대한방직협회, 1954.
21. 대한방직협회 50년사(1947-1997).
22. 한국은행 통계자료.
23. 무역협회 통계자료.
24.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자료.
25. 장석운, 우지형, 한국 근대과학기술사 조사연구(섬유분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2.
26. 박성래, 과학사, 1995b.
27. 조선총독부, 1915.
28. 경성공우구락부, 공우(工友), 1920.
29. 김상용, 우리나라 최초의 기술지 “공업계”, 대한민국학술원통신 195호, 2007.
30. 과학조선(科學朝鮮) 창간호, 발명학회, 1933.
31. 실업(實業), 실업사, 1927.
32. 산업계(產業界), 조선물산장려회, 1923.
33. 幣原 担, 朝鮮教育論 149-150. 文盟館, 龍溪書舍, 1919(2005 복간).